



‘열정의 삶’ - 도전은 계속된다

엔돌핀 충전 충만! 산 사나이 김동근(공대 60) 동문의 말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산을 좋아해 시작한 암벽타기가 이제는 매주일 산을 타야하는 클라이머가 되었다. 남가주 동창회 산악회와의 인연만도 24년이 되었다. 회원님들과 같이 하는 산행도 즐겁고 동갑내기 아내와 같이 하는 등반으로 건강을 다진다. 보람이라면, 생명을 걸고 바위에 매달려 삶을 바라보다 보니, 사소한 일에 애꿎을 일 없고, 자연과 하나된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곤 한다고 한다. “산을 타고 난 후에는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엔돌핀이 팍 팍 도는 몸에 활기가 충만해집니다.” 동창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 INCA TRAIL Trekking, Yosemite, Grand Teton, Tuolumne 등이 기억에 남고, Yosemite El Capitan Nose 암벽등반이 가장 기억에 남고, 부부가 함께 한 Half Dome-Snake Dike Rock Climbing 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는 김동문은 85세의 미국친구처럼 할 수 있을때까지 암벽을 오르는 도전의 삶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즐거운 삶을 동문 모두가 즐기기를 바란다고 한다. 사진의 등반은 남가주 동창회 2박3일 가족 캠핑시 모습이다. 12명의 동문들이 뒤를 이어 등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한다. <관련기사 7면에 계속>

홍승욱 동문, IEEE 공로상 수상

MRI 촬영장치 시스템 개발 상용화 업적 “사회에 유익한 활용 보면 뿌듯함 느껴”

미전기·전자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초전도위원회(CSC)는 최근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쓰이는 초전도물질의 전도율을 3배 이상 높인 연구 성과와 이를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홍승욱(문리대 59) 물리학 박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MRI의 60% 이상이 홍 박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노틀담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뉴저지 주에 있는 옥스포드 인스트루먼트에서 35년간 근무한 홍 동문은 6년 전 연구담당 부사장으로 은퇴했다. 홍 동문은 미주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닌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내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동문은 한국에서 열리는 ‘제24회 자석기술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 Technology 24 10/18-23)’에 참석해 수상할 예정이다.

사과드립니다 9월호 배송시 동문님들 성함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과정과 인쇄과정을 확인 중입니다. 모든 오류는 news@snuaa.org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Labor Day 2박3일 가족캠핑 - 김동근(공대 60, 산악반장)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1 열정의 삶/홍승욱 동문 IEEE 공로상
- 2-3 이슈: 한국사 국정화/공대의 반성
- 4 논설: 주필/한국학/한국영화
- 5 우리민족의 문자생활
- 6 모교소식: 미북지부 장관과의 대화 등
- 7-10 지부소식: 남·북가주/NE/워싱턴/RM/PA/NY
- 11 게시판/홈커밍데이
- 12 체험기: 샌디에고/SNULIFE
- 13-15 칼럼: 이상봉/목인희/곽금주/김인종
- 16-17 My Story & Your History
- 18-19 동문글: 나민애/김광현/문병로
- 19 동문시간: 이상희
- 20-21 동문글: 장수영/조하유, 동문시간: 백순
- 21-22 동문글: 전무식/조동준/송호찬/손명세
- 23 영화이야기: 인상파/칼럼: 정수경
- 24 가을서신: 곽상희/여행기: 산티아고
- 25 칼럼: 이정식/여행기: 싱가포르
- 26-27 부고/회비 & 후원금 동문명단
- 28-32 미주 동문 업소록/광고/편집후기
- 3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지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현행 8개의 한국사 검인정교과서를 한개의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겠다는 정부방침으로 국회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찬반토론이 활발하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본보는 이번 이슈에 대한 쟁점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현황도 살펴본다.



▲ 현행 8가지 검인정 교과서

서울대 역사학 관련 5개학과 교수들은 -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41명(외국인 교수 4명 제외) 중 34명이 서명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연세대학교수 132명, 고려대 교수 160명, 동국대 65명, 충남대 145명, 부산대 24명, 덕성여대 40명 등 대다수 대학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0월 2일에는 전국 중·고교 역사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공시연) 등의 단체들은 이들 교수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쪽은 “역사학계가 좌경화돼 이들에게 교과서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관련 학자 상당수가 좌파연구모임 소속이고 ‘계급사관’ ‘민중사관’ 심지어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이념공세’라고 일축한다. 오히려 국정화를 주장하는 측이 ‘극우’여서 중도적인 역사학계를 좌파로 규정하는 거라고 반박한다.

찬성 측은 역사학계 좌경화의 증거가 교과서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부분을 문제 삼는다. 예컨대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 안전보장과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이고 미국이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6·25전쟁에 대해선 전쟁 전 남북 무력충돌이 잦았던 점을 강조해 북한 책임을 희석하고, 합일전쟁에서는 김일성의 보전적 전투를 불필요하게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나쁜 인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대 착오적인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등교육과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로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일 서울대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4일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의 움직임에 당당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교육의 내용과 교과서에 대하여 일절하게 간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일당 독재가 자행되는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등이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을 뿐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단행되

반대 측은 ‘집소봉대’라는 입장이다. 현행 교과서가 보수정권의 검정시스템을 통과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친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므로 여러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길러줘야 한다’ ‘국정화는 정사(正史)도 포장된 집권세력의 역사관을 주입하며 이념갈등이 첨예한 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찬성 측은 국론분열이 교실에서 싹튼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좌파 역사학계가 정부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사실 등 ‘자학적 사관’을 충·중·고생에게 주입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본다.

이를 막으려면 역사학계가 균형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화 반대 측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신시대와 5공화국 때 국정교과서가 낫 뜨거운 ‘정권 홍보물’로 전락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라는 것이다.

유신시대 국정으로 전환된 국사교과서는 5·16군사정변을 ‘구국의 혁명’으로 지칭했다. 5·16을 ‘4·19의거의 계승·발전’, 유신을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화하기도 했다. 전두환정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문구로 찬양했다.

찬성 측도 과거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긍하는 편이다. 다만 ‘과거의 일’로 치부한다. 수많은 매체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최고 권력자를 향한 날선 비판과 풍자를 쏟아내는 현실에선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정권을 찬양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과서 개발 초기부터 인터넷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도 국정화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집필자 명단 등을 공개해 논란거리를 없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 측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저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승만·박정희정부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독재·친일 등에서 건국·반공·경제발전 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정부를 교묘히 미화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1965년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을 반공과 경제성장의 관점을 강조해 서술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국정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도 교학사 교과서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내다본다.

교육계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UN은 2013년 제68회 총회에서 바람직한 역사교육 지침에 대해 “역사 교육은 애국심과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해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젊은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서는 안 된다.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국가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구분	국가명	국가 발행	검·인정	자유발행	비고
OECD 주요 회원국	터키	○	○		중등 '역사'는 교육부 발행 교과서 사용 (교과서 대부분이 교육부 발행)
	아이슬란드	○		○	초·중학교는 교육당국의 교육기자재 센터에서 교과서 발행, 고교는 민간출판사 교과서 사용
	그리스	○			교육부가 제작된 교재 중 심의를 통해 1종류씩에 전국에 우상 보급
	핀란드			○	
	프랑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일본			○	
	독일	○			
	영국	○		○	
G20 국가 (OECD 중목 제외)	인도	○		○	각 주별로 상이
	인도네시아	○	○		국정은 연방에서 운영하는 학교, 자유 발행제는 사립학교
	중국	○	○		국정은 일부 경제적 낙후지역 대상
	브라질	○	○	○	
	아르헨티나	○	○	○	
	사우디 아라비아			○	검정 심사 후 과목당 한 종류의 교과서 선정에 관급
	싱가포르	○	○		'싱가포르역사'는 교육부 발행, '사학' '공민' '모국어'에 한해 국가가 작성 (교육부 정밀해 민간출판사가 출판)
기타 아시아 국가	태국	○	○		'국어' '국사' '도덕' 국정 발행
	말레이시아	○	○		'역사' '이슬람교 교육' 국정 발행
	필리핀	○	○		
	베트남	○	○		
	스리랑카	○	○		
중국	○				2005~2010년 검정제 실시 후 현재 국정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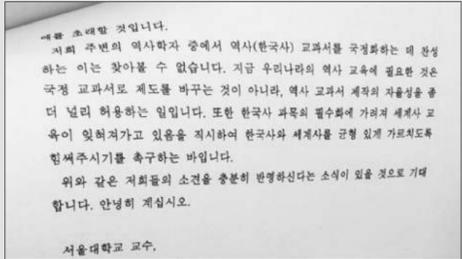
*교육부가 논문 등 자료를 토대로 해외 대사전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 (교육부)

은 모두 배척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된다. 그 결과 가치관의 경직화가 초래되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경형화해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또는 암기식 교육만이 행해질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다. 개인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고 자율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시행 중인 교과서 검정과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등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14년간 시행돼 지낸 기존의 제도를 점검할 생각 없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정신에 반할 뿐더러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중단돼야 한다. <대학신문: 발행인 성낙인>

[전문] 서울대 역사 교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서울대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 34명은 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교육부 장관님께,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관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역사학 전공 교수들은 중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장관님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모적 논란을 줄여 역사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살려,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즈음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널리 천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권의 그러한 논의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논거는 다수의 교과서가 사용됨에 따라 내용 통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검정 제도만으로도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그리고 검정 과정을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행함으로써 바로잡을 일입니다.

국정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계의 의견을 더욱 널리 모아 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정교과서 제작에 반영할 학계의 의견이라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개발, 그리고 검정 과정에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 주변의 역사학자 중에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에 가려져 세계사 교육이 잊혀져가고 있음을 직시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들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동문들의 의견을
news@snuaa.org로 보내주세요.

서울대 공대의 처절한 반성 4가지

서울대 공대가 처절한 자기반성을 담은 '201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부제: 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를 최근 발간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백서에는 100페이지 넘는 분량에 걸쳐 홀린(실패 확률이 높은 어려운 연구)을 치러는 노력보다 1루 진출(단기 성과, 논문 수 채우기)에 만족했던 안이한 태도를 반성하는 문구들이 가득했다"며 "우수한 대학 중 하나"가 아니라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탁월한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서울대 공대의백서는 1991년 발간된 '공과대학은 발전하고 있는가? 대학의 위기/반성과 각오/전망과 대책'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 같은 반성은 왜 나오는 것일까.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 자부하지만, 세계 속의 서울대는 경쟁력 면에서 초라하다. 특히 공대로 특화된 카이스트나 포스텍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뉴스1'에 따르면 백서 발간을 요청한 이근우 공과대학장은 "1991년 발간된 백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현재 서울대 공대의 모습이 됐다"며 "서울대 공대의 르네상스를 재현하기 위해 백서 발간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2015 서울대 백서"를 입수해 보도한 매일경제 등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백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했다.

1. 서울대 공대는 1루만 진출하면 만족하는 타자였다

백서에서 서울대는 그동안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왔다고 고백한다. 야구로 치면 주자를 루상에 채운 다음 홈런을 치기 보다는 번트라도 대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연구성과와 세계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가 적다. 교수들에게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것을 강요하고 연구의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시스템 때문에 서울공대에서는 야구로 비유한다면 번트를 치더라도 꾸준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 (연합뉴스)

2. 논문은 양은 많지만 질은 낮다

백서에서 서울대 공대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발표하는 논문의 양은 많아졌지만 인용횟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꼽힌다.

매일경제는 "전체 대학평가 순위에서는 서울대에 뒤지는 포항공대가 논문인용과 국제평가에서는 더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울공대의 낮은 연구성과를 질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 연구개발 자금 지원정책은 교수들이 '문어발식 연구'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통상 연구과제는 단기(보통 3년)로 지원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재정적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은 국도의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고 급급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학협력이 대기업 의존적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연구를 주도하면서 서울공대는 그 일부 기술을 개발 조달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외국에 비해 혁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매일경제)

3. 연구비 증가, 박사 과정 학생수 제한 필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1월21일 미국 보이시주립대 마이크로엔지니어링센터 연구실을 찾아 데이비 에스트라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요건들도 제시했다. 바로 연구비의 양적 증가와 박사과정의 학생 수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서울대의 지난해 공대 연구비 총액은 1659억원으로 미국의 MIT(4385억원)·스탠퍼드대(3971억원)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교수당 연구비 역시 4억9200만원으로 스탠퍼드대(15억3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4. 한국의 위기감 = 서울대 공대의 위기감

이 백서가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의 상황이 서울대 공대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이 위기감은 서울공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기도 하다"며 "백서는 우리나라의 위기상황 진단으로 시작했다. 산업화 후발국인 중국이 철강·조선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했고 IT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에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등 공대와 전혀 무관한 곳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대 경시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대 방문교수였던 캘리포니아대 마이클 소데르스트란드 교수는 백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대에서 가르쳤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 미국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전과(轉科)를 하든가 다른 흥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또 국내의 대학은 물론 1991년에 설립된 홍콩과기대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약하다고 지적된다. 백서 발간을 주도한 원용용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스펙 경쟁에 뛰어들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서울대 공대생에 대해)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인 산업구조로는 현재 처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대 공대가 대기업 지원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국가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매일경제)

과연, 서울대 공대는 혁신될 수 있을 것인가?

논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필 정호택 (상대 61)

무리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 Norwegian Woods>의 주인공 와타나베는 책의 맨 끝에서 이렇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독자를 끌고 근 오백 페이지를 뱅뱅 돌리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이 말은, 읽으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는 듯 했다. 연애소설 읽는데도 얻을게 있다는 말인가?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미도리라는 한 여자에게 정착하려는 그런 신화적 재미로 읽어내려 오다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언가가 있다'는 묵시. 결국 나는 재독했다. 내 독자 역사상 처음으로 책의 끝장을 넘기면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간 것이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하루키를 만났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즈 지면에서였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가 하루 아침에 무를 꿰었다. 누구에게 꿰었는가? 당장은 아무도 몰랐다. 부시대통령 이하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현장에 달려가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면에 매스컴은 즉각즉각 보도하고 있었다. 온 사회가 온통 펄쩍 끊는 기름 가마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당시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며칠 후 점심 시간에 뉴욕타임즈를 집어 들었다. 거기 무리카미 하루키와의 9.11사태에 대한 국제전화 대담이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페이지가 문화면이 아니라 정치면이었고 또 페이지 3인가 4인가 하얀 표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기자는 하루키에게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묻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에도 역사가, 철학자, 학자, 작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수 천리 밖 외국인 하루키에게 물었을까? 생각해 보니 당장은 불가마 속의 흥분 속에서 제대로 된 답을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었던 듯 하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맹방 일본이 떠올랐을 터이고 거기에는 영어 잘하고 역사적 안목이 뛰어난 하루키에게 낙점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당시 하루키는 21세기 포스트 모던 작가군들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냉정하게 미국의 거시적 좌표를 찾고자 친구에게 자문하는 뉴욕타임즈의 여유와 안목이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뉴욕타임즈와 하루키 얘기를 쓰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지령 300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신문의 주필로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야 하는가?'

만 명이 달하는 우리 신문의 독자들에게 물으면 응당 백가쟁명 각종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내부의 답변보다는 외부 분이면서도 우리와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서 답을 찾고 싶어졌다. 7월호 우리 동창회보를 다시 펼쳐들고 총장님과 동창회장님의 축사와 격려사를 주의깊게 읽어 보았다.

성낙인 총장님은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 법인 체제로 전환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는 법인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시며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하나로 <선한 인재상> 정립을 제시하셨다. 그러면서 "선의지(善意志 Gutter Wille)가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각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셨다. <선의지가 충만한 인재>가 확실하게 어떤 인재를 말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선의지가 충만한 인재>의 정의(定義)를 확립해 나가는데에는 힘과 시간이 들 것은 짐작이 간다. 앞으로 그 정의와 행동지침이 본부에서 하달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우리도 공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정화 동창회장님은 격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 10만명을 찾아보고 올해도 15만명을 추가로 확언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규합해 국가별 총동창회를 계속 확장하여,"

서 총동창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10만명의 새 동창들을 찾아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몇 명이나 새로 찾으셨는지 그들의 명단이 동창회에 전달이 되었

는지 아직은 아는 바 없다. 새로 찾은 동창들의 나라별 분포와 주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추가로 15만명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이 15만명 찾기 운동에 미주동창회는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 실행세칙을 주셔야 하리라고 믿는다.

미주동창회는 법인체제로의 서울대의 변신에 간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기 보다는 부지런히 본교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 편 이와 잇몸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총동창회와는 더욱 공고한 협력적 관계를 추가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 발견될 15만명 중 미국에 사는 동창들은 바로 '우리 신문의 예상 구독자'이고 '평의원회 임원 후보자'인 동시에 '신문 투고자'인 까닭이다.

이렇게 서울대 본부, 총동창회 그리고 미주동창회가 3위1체의 협력체제로 운영될 때 우리의 좌표가 확실해지고 미주동창들의 일체감과 협력이 배가 되고 모범적 선순환이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손재욱 미주 동창회장에게 바란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과 서정화 총동창회장님은 미주 동창회원 서자가 일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간의 돈독한 관계, 상호 유익을 강조하셨다. 그런 막강한 재미동창회의 2015년 평의원회에 두 분 공히 참석을 못하셨다. 이에 대해 본인들도 섭섭함을 표시하셨지만, 주회측에게는 섭섭함을 넘어서 소외감마저 느꼈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손재욱 동창회장**은 지금부터 두 분들께 내년도 평의원회 날짜를 미리 말씀드려 2016년에는 꼭 참석하시도록 해야 한다. 세 단테 모두에게 일거양득보다 더 좋은 일거십득이 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러 지원에 힘입어 한국문화학과 문화 심포지엄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센터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C버클리 한국학센터 CKS 새디렉터 스테파니 김씨



터(CKS) 디렉터로 부임한 스테파니 김(한국명 김기은, 32, 사진)씨는 예정된 세미나의 참가자 초청, 일정 조율, 기획 등으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 영문학 학사, 뉴욕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UCLA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으로 현재 UC버클리에서 박사후(postdoc)과정을 하고 있다. 김 디렉터는 "내 다양한 교육적 배경이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학 영역과 연구층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UC버클리 CKS는 정치학과 국제관계분야를 지원하는 스탠포드나 USC 한국학센터와 달리 학문적 정체성과 접근방식이 유연하다"면서 "2013년 삼성의 300만달

독, 11월 류승완 감독 초청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영화학과 학생들은 이들 감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19일 오후 2~5시 AFI에서, 21일 오후 4시~6시45분 채프먼대에서 특강을 하는 김형구 촬영감독은 '연평해전', '괴물', '살인의 추억', '박하사탕', '태양은 없다' 등에 참여했으며 대중상·영평상·청룡영화상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남 교수는 국문과 졸업후 한국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영화공부



▲ 2008년 5월 이남 박사 졸업식 때 남편 정건수(공대79) 동문과 함께

한국학 뉴스

한국학센터(CKS)는 동아시아연구소(IEAS)의 부설기관으로서 UC버클리 국제지역 연구소(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내에 있다. 이 센터는 미국에서 한국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대학센터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의 목표는 국제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한국문화학과 사회학, 국제정치 등 다양한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말 UC버클리 한국학센

한국영화, 미국 내 대학 정규 수업 채택... 7개 대학서 수업. 특강 진행

한국영화 과목이 미 대학에서 개설됐다. LA 한국문화원은 가을학기부터 미국 내 7개 대학에서 '한국영화의 오늘(Korean Cinema Today)'을 제목으로 한 수업 및 특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채프먼대 닷지 영화·미디어아트 학과는 '한국영화의 오늘'을 정규수업으로 채택했다. 이남(국문과 79) USC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흥행기록을 세

운 대작, 세계에 알려진 작품들을 관람하고 토의하게 된다.

문화원은 또 감독 등 한국 영화인을 초청, 채프먼대를 비롯해 USC, UCLA, UC 어바인, UC 샌디에이고,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AFI)에서 월별로 특강을 진행한다. 9월에는 김형구 촬영감독, 10월 정주리 김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 - 한글창제 572주년에 -



이호영 (문리대 77)

우리 민족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문자 생활을 영위해 왔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가 유입되었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한자가 공식문자로 채택되어 행정과 교육에 사용되고 수많은 역사서와 문학작품이 한문으로 기록되면서 문어 전통이 수립되었다. 문어 전통의 수반으로는 한 민족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민족처럼 이른 시기에 문어 전통을 수립한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신라의 최정성기인 8세기 무렵에는 수도 서라벌이 콘스탄티노플, 장안, 바그다드에 이어 세계 4대 도시였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8세기에 이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정상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목판 인쇄와 금속활자 인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7세기 초에 신라에서 만든 <무구정광다라니경>이다. 목판 인쇄는 중국에서 50년 정도 먼저 시작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초기 목판 인쇄물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고려시대인 1377년경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이 편찬되었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서서가 1455년에 인쇄되었으니 이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1234년에 <상경도읍연문>이라는 문헌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고 하니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는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문자의 발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문자가 사용되면서 임의로만 전승되던 언어와 문화가 기록되었고,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 문명이 발달하였다. 금속활자의 발명 역시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금속활자로 인해 성경을 비롯한 많은 인쇄물이 제작되고 보급됨으로써 소수의 엘리트들이 독점했던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민족은 세계 문화사에 길이 남을 기록물을 만들고 보존해 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헌만 해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불조식심체요절>,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의궤(儀軌)>, <승정원일기>, <난중일기>, <일성록>, <동해보감>, <새마을운동 기록물>,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1점에 달한다.

우리 조상이 이른 시기부터 한자를 도입해 문어 전통을 확립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남기고,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하는 등 문자 생활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려왔으나 두 가지 매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말은 우리말을 쓰고 글은 중국의 한문을 사용하는 이중 언어생활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문은 소수 지배 계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은 문자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표음문자를 갖게 되었지만 지배계층은 여전히 한자만을 사용했고, 훈민정음은 주로 부녀자들과 평민이 사용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왕과 왕족이 훈민정음을 배워 꾸준히 사용하였고, 세종대왕 이후로 하급관리를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켜 일부 관리들도 훈민정음을 배워 훈민정음의 명맥이 유지되었다.

우리 민족이 한글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역사적으로 조선이 망까지 직전인 1894년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민족적인 암흑기 동안이었다. 1894년 11월 고종은 "법을 칙령은 다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또는 국한문을 혼용한다."라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한글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해방 후 77%에 달하던 문맹률은 1950년대 후반에는 28%로 감소하였다. 한글의 보급은 교육혁명을 촉진했고,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한 선언에 불과했다. 왕실과 조정에서 한글 보급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96년 4월에는 독립협회에서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는데, <독립신문>의 발간은 이후에 한글 전용으로 가는 문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종의 칙령과 <독립신문>의 발간으로 싹트던 한글문화는 일제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1938년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하고 일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 선각자들은 1933

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1936년에는 표준말 어휘를 사정하여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편찬하였으며, 1942년에는 <우리말 큰 사전>의 일부를 출간하는 등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우리말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조선민족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민족운동의 하나로 본 일제는 1942년 조선어학회 33인을 내란죄로 투옥하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 민족의 한글문화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500년이 지나서야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에서는 조선어학회 33인 중 한 명이고 탁월한 국어학자인 최현배 선생과 다른 한글 전용론자들의 자문을 받아 한글 전용 교과서를 제작해 한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한글날에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었다. 미군정 하에서 시작된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한글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해방 후 77%에 달하던 문맹률은 1950년대 후반에는 28%로 감소하였다. 한글의 보급은 교육혁명을 촉진했고,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자문화에서 벗어나 새롭게 한글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런데 한자문화의 전통을 내려놓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두려운 일이었다. 오죽하면 최만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쓰는 건 곱골이나 일분같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중국이라도 흘러 들어가서 육사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겠는가?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쓰면 의사 전달에 부족함이 있고, 지식이 전파된다는 주장을 하는 최만리의 후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우리말은 교착어라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고, 중국어와 어순이 달라 신라시대부터 한문에 어두를 달고, 간혹 우리말과 같은 어순으로 한문을 쓰는 전통이 있었다.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에 한문을 포기하고 국한문 혼용으로 전환되었는데, 다음의 독립선언문에서 보듯이 초기의 국한문 혼용은 과거의 이두 사용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吾等(우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인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義)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지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다음은 위의 글을 한글로만 적은 글이다. 일제 강점기의 국한문 혼용체와 오늘날의 한글 전용체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말의 새로운 문체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를 자손 대대로 알려주어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고자 한다."

1948년 한글전용법의 제정 이후에도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은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실시했던 시기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에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한글 전용을 선택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적인 신문들이 지속적으로 한자 사용을 줄여 지금은 거의 완전한 한글 전용 신문으로 변신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글 전용의 대세는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랜 한자문화 전통을 버리고 한글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유럽 안에서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세익스피어의 등장 이후 문화적인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독일 사람들은 괴테의 등장 이후 비로소 문화적인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대문호를 배출하지 못한 우리 민족은 문화적인 자긍심이 없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지금 문화적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주었을까? 세계적으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사용한다는 자긍심 말고는 달리 답을 찾을 수 없다. 독자적인 한글문화를 꽃피운 민족! 문화적 자긍심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교소식 SNU NOW

미국 복지부장관과의 대화

서울대학교는 2015년 9월 8일(화) Sylvia Mathews Burwell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U.S. Secretary of Health & Human Services)을 초청하여 문화관 중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서울대 학생들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 및 학생과의 대화에는 서울대 재학생 및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프란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원장이 함께하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특히 MERS, 에볼라 등 전염병 문제, 보건복지부와 유관부처간 협력, 보건정책과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

공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국의 의료보험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세계적 이슈인 보건-의료정책 개혁에 있어서도 정책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개선 및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행사 후 프란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로저 글라스 미국 포기타 국제센터 센터장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콜린스 원장과 글라스 박사는 강대희 서울대의대 학장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방영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과 환담을 하고 병원의 진료 및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콜린스 원장은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의생명 분야 연구의 절호의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국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강 후에는 국립보건원에서 연수를 했던 교수들의 경



험을 일일이 경청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세계 의학연구의 메카로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많은 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의학발전을 이끌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류의 보편적 건강증진을 위한 양 기관의 연구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한인변호사대회' 개막행사 이끄는 최병선 회장



"법률 시장 개방 시대에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한인 변호사들끼리 만나는 자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 17일 연세대에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변호사대회 리셉

션 행사 후 최병선(문리대 외교학과 77, 사시합격84) 세계한인변호사협회(IAKL)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18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세계한인변호사대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앞서 그간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최 회장은 "미국은 물론 아르헨티나, 독일 등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일부러 찾아와 줄 정도였다"고 밝혔다.

IAKL은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최 회장은 "변호사 자격증 기준으로만 본다면, 현재 우리 회원들의 국가 분포도는 약 20

개국에 달한다"며 "하지만 미국 변호사로서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등 근무처 기준으로 보면 더욱 범위가 넓어진다"고 소개했다. IAKL은 매년 1차례 변호사대회를 여는데, 격년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열렸을 때 회장직을 맡게 돼 올해 행사를 주관한 후, 내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새 회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IAKL은 한인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조각상인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계 미국인들이 철거하려고 하자 한인 교포들을 도와 현지에서 있는 한인 법률가들이 한국 내 법률가들과 함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철거를 막기 위한 법률 활동을 지원했다. 해외 현지 교민들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IAKL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청년 변호사 멘토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세계로 눈을 돌려 용기를 냈으면 한다"며 "판검사가 전부가 아니라 눈을 돌리면 한국에도, 그리고 외국에도 법조인들이 일해야 할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 변호사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와 인기도 높은 편이라고 그가 전했다. 최 회장은 "요새 변호사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한국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며 "외국에 나갈 때 절대적 학력 수준은 상당히 위에 있으니 도전해 봐도 좋다"고 조언했다.

간호대 박현애 동문, 세계의료정보학회(IMIA) 회장 취임



박현애(간호대 80) 교수가 2015년 8월 20(목)~23일(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2015년 세계의료정보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제16대 세계의료정보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세계의료정보학회는 전 세계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기술 활용을 다루는 보건-의료-전산-정보학 전문가들이 1967년에 설립한 학회로 현재 아태,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6개 대륙회원 산하 62개 국가가 정식회원, 31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련 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다양한 형태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의료정보학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대륙회원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뿐 아니라 대륙을 순회하면서 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보건-의료정보학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Medinfo 시리즈, 세부 분야별 전문가들의 학술활동 그룹인 26개 WG, 3종의 SCI(E) 등재

학술지(Applied Clinical Informa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Methods of Information in Medicine)와 연보(Yearbook of Medical Informatics) 발간을 들 수 있다.

박 교수의 회장 취임은 여성으로 세 번째, 아시아권에서 세 번째이며 임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이다. 임기중 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중국 북경에서 국제학술대회인 Medinfo 2017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임기 중 새로운 회원국 영입, 기존 회원국의 새로운 전문가 영입 등 학회의 양적 발전 뿐 아니라, 학회 내 회원간, WG간, 학생과 연구자간, 학계와 업체간, 타 기관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 학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교수는 1980년 서울대 간호대 학사학위 취득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1987년 보건통계/보건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약 5년간 근무했으며 1992년부터 간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 교수는 2006년부터 세계의료정보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세계간호정보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표준기구(ISO), 세계보건-의료용어표준개발기구(IHTSDO) 등에서 보건-의료정보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대 간호대학>

남가주 동창회 : Labor Day 가족 캠핑



관람팀, 제기차기(공대, 하기환), 하이킹팀, 왼쪽부터 : 오홍조(치대, 전 총회장), 노명호(공대, 전 총회장), 김상천(문리대, 전 총회장), 김경세(의대), 산악자전거팀, 박혜옥(간호대, 총동창회장)

낚시, 하이킹, 산악자전거, 관광팀 등 2박3일 가족 캠핑 즐겨...

<1면에서 계속> 2015년 9월 5일-7일까지 Labor Day 연휴를 맞이하여 총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가 2박3일의 일정으로 맴머스 레이크에서 개최되었다. 200여명의 동문들과 친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황을 이루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를 떠나 대자연이 경관을 이루는 맴모스 호수 일대를 두루 관광하며 다음의 일정으로 유예를 다졌다.

토요일 오후 4시에 New Shady Rest Park에서 간호대 동창회 주관으로 BBQ Picnic이 있었다. 박혜옥(간호대 69) 총동창회장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소개와 참가 동문 소개에 이어 다영남 행사 안내와 Activity Group 담당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저녁에는 맴머스 캠프 사이트에서 캠핑하이어가 있었고 싱어송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인중(농대74), 양수진(간호대80) 동문의 기타 반주와 김영민(농대72) 동문의 즉석에서 iPad를 이용한 올건 반주와 더불어 동문들의 노랫소리가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타오르는 장작 더미의 불꽃을 타고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이튿날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15명의 낚시팀은 박정모(문리대66) 동문의 인솔하에 Lake George에서 새벽 낚시를 즐겼다. 한편, 42명이 모인 하이킹

팀을 김동근(공대60, 산악반장) 동문과 조정시(공대60) 동문의 지휘 아래 두조로 나뉘어 맑은 산공기를 마시며 하이킹에 나섰다. 1조는 Barney Lake(고도: 10,200', Elevation Gain : 1,120')의 6마일 코스, 2조는 Duck Pass(고도:10,797', Elevation Gain: 1,727')의 10마일 코스의 험한 산행을 완주했다. 조정시 동문은, 정상에 오른 후 발 아래의 광활하고 푸른 Duck Lake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혜연(음대79, 철벽지 회장) 동문이 이끄는 9명의 산악자전거팀은, Panorama Gondola에 잔차(자전거)를 싣고 11,503 피트 정상에서 시작하여 Mammoth Mountain Bike Park에 있는 Iconic Trails(Exceptional Down-hill Intermediate Trails) 중에서 'Off The Top' Trail을 자전거로 두 시간 동안 활강해 내려 왔다.

양민(공대77, 총무국장) 동문의 인도하에 30명의 관광팀은 Shuttle로 Devils Postpile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인 이곳은 10~70만년 전 융암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 현무암 기둥, 지구 생성의 신

비함을 보여 주는 지질학적 명승지 중의 하나인데 육각형의 원주 형태로 땅에서 솟아 오른 현무암 기둥들이 주위의 경관을 압도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나서 45,000 에이커가 넘는 크기의 Mono Lake에 도착했다. 바닷물의 염도보다도 4배나 되는 Calcium Carbonate Alkaline Water로 수심이 깊을 때는 Tufa 기둥이 계속 자랐으나 물이 줄어든 현재는 수면위의 Tufa 기둥은 풍화작용으로 기기묘묘한 각양각색의 형상을 하고 있어 대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Mono Lake에는 빙하시대 이전부터 살던 여러 동식물이 아직 자라고 있어 생태학적, 물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각팀의 일정을 마친 동문들은 오후 5시부터 New Shady Rest Park에서 공대 동창회 주관으로 베풀어진 BBQ Picnic에 이어 각종 게임을 즐겼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보물찾기: Mrs. 조정시(공대60), 이완구(수의대92) 아들, 율라후프: 하기환(공대66) 손녀, 제기차기: 최진석(법대64), 신명균(의대77), 김영혜(문리대86), 신발던지기: 유이중(농대74) 동문 등이다.

월요일 아침 식사 후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였는데, 일부 하이킹팀은 10일까지 연장 산행했고, 일부 철벽지팀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7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LA로 돌아 오는 모험을 즐기기도 했다. 관광팀은 비숍의 Historical Cake Shop을 들렀고 Sabrina Lake과 Red Rock Canyon 등을 관광했다. 또한 관광버스로 여행한 동문은 모두 42명이었는데, 박영국(미대66 미대회장), 정병혁(농대70 농대회장), 홍성선(약대72 약대회장), 유이중(농대74), 양민(공대77) 동문 등의 강연과 음악감상, 김홍목(문리대61), 서영란(음대75), 이명일(약대72) 동문의 싱어송 등 다채로운 순서로 가고 오는 버스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미리 준비한 배지, 골프 수건, 골프 모자, 메모 수첩 등의 작은 선물을 동문들에게 나눠 주었다. 버스 안에서 수고한 동문은 양민(공대, 총무국장), 홍성선(약대72, 사업국장), 양수진(간호대, 부분회위원장) 동문 등이고 음악 준비는 조무상(법대70, IT위원장) 동문이며, 그리고 프로그램 순서 진행은 홍선례(음대70, 문화위원장) 동문이 맡았다. 2박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문들은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산의 정기를 마시며 맑은 호수의 물빛을 눈에 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맴머스를 떠났다. <글, 사진: 홍선례(편집위원, 남가주동창회 문화위원장)>

남가주 동창회 : 와이너리 동호회 홍선애 동문 전시회 방문 / 현혜명 동문 전시회

소박한 남가주 동문들의 모임 '와이너리 동아리'가 8월 12일 Laguna Beach 홍선애(미대 62, 전 미대 동창회장)의 그림 전시회장을 방문했다.

L.A. 작가의 집(김병연 차기회장)에 모여 15인승 Ben에 전부 함께 타고 김창신(문리대 75) 전 총무국장의 안전한 운전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름다운 Laguna Beach 동네에 30여명 동문들이 도착했다. 여기는 정말 상상하던 미국, 꿈에서 살고 싶은 은퇴하면 쉬고 싶은 곳이다.

자그마한 갤러리에는 화사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고 곁들여 화려한 색깔의 12색 샐러드와 간식, 그리고 격조있는 볼그스레하고 맑은 와인("LA Montanita Vineyard"의 Denyse Pyo 한국여성 경영 선사)이 전원을 환상의 세계로 몰입시켰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기형(상대75) 국장의 사회로 이어진 주일엽(음대73) 동문의 브람스의 'Hungarian Dance No.5'와 헨델의 Messiah 중에서 2곡, 바이올린 연주와 김민희 시인의 '성산포' 시낭독, 이병일(약대 72)동문의 기타 연주에 참석자들은 마시던 와인을 잠시 멈추고 옛 대학 학창시절로 돌아가 한편의 영화 같은 옛 추억에 잠겼다.

계다가, 여성 오페라대회가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붙어 게스트로 오신 이경희님이 명예의 왕관을 차지해 홍선애 동문이 직접 만든 토기 그릇을 시상했다. 김병연 차기회장은 홍선애 동문에게 크리스탈 와인잔을 증정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야외에서의 저녁 또한 기대되었다. 다함께 Beach가로 옮겨는데 그 자리가 바다를 바라보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계단식 자리여서 우리만의 왕궁식당이었다.

김기형(상대75)국장의 바베큐 준비로 맛있는 스테일을 남성분들이 열심히 구어 여성분들께 Serve하니 이만한 최상급의 Restaurant이 어디 또 있을까?

공간의 제한이 없는 푸른 태평양 바다, 뻥뻥이는 파



'와이너리 동아리' 라구나비치 홍선애 전시회 방문

도, 맛있는 스테이크와 이병일 동문의 기타 연주까지 오늘 하루를 천국에서 숨쉬게 했다. 이랬다 동아리는 참석하면 후회가 없다. 갈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무조건 가는 것이 원칙이랄까?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사진: 홍선애(미대 62) 전 미대회장>

현혜명(미대61) 동문 37번째 작품전

화가 현혜명씨가 토머스 폴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9월 17일부터 작품전을 가졌다. 개인전만 통산 37번째, 이 갤러리에서는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는 작품전이다.

남가주 화단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 현혜명은 섬세하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의 작품을 주류 화단에서 쉬지 않고 발표하며 호평받고 있는,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흔치 않은 작가의 한 사람이다.

이번 초대전에서 현씨는 '조상들의 정원'(Ancestral Gardens)이란 제목으로 다시 자연을 찬미한다. 이 시리즈는 오래 전 청계천에서 구입했던 고서를 뜯어 캔버스에 붙이고 그 위에 그린 그림들로, 2006년 시작한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늘 자연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그는 새롭게 찾아오는

계절,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는 꽃과 나무, 웅장한 산과 드넓은 바다에서 매번 신비와 경이감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놀라움을 화폭에 투영한다. 또한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두 문화의 상반된 배경이 긴장과 조화를 이룬데서 오는 그만의 특별한 감성이 관람자를 사로잡는다.

수채화로부터 시작해 맑고 투명한 작업이 영혼의 정화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작품들은 '체리 블러섬' 시리즈를 비롯해 흑백작업 '하도' 시리즈, '여정' 시리즈를 거쳐 '숲'과 '내 마음속의 정원'(Garden in Me)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관되게 노래해 왔다.

현혜명씨는 서울대 미대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아트즈를 졸업하고 하트포드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50년 작가생활에서 개인전만 35회를 가졌으며 수많은 그룹전 참여와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 현혜명의 작품 '조상들의 정원' 시리즈

동문회에 참석한 3명의 동문을 포함하여 각자의 자기 소개가 끝난 후 물풍선 던지기, 공 굴리기, 배드민턴 오래 치기 및 제기 차기 등의 유쾌한 게임을 남녀노소 다 함께 시종 웃음 속에 즐겼고 개인 및 단체로 상품 시상도 있었다.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홍지복 동문(간70), 감사에 김선혁 동문(약59)이 인준되었고, 집행부로 총무에 노동완 동문(공84), 기획에 도상주 동문(공84), 진행에 조진행 동문(공90), 회계에 김제성 동문(공87), 음악에 김유경 동문(음72)이 일년 동안 수고하게 되었고 또한 이계복 동문(공72)과 광세홍 동문(공75)이 신임 이사로 영입되었다. 앞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통하여 계속 동문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3시에 야유회를 마쳤다. <이의인 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 : NE 야유회 개최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이의인)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야유회가 지난 9월 12일(토) 낮 11시부터 Newton 소재 Auburndale Park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55학년부터 03학년까지의 50명이 넘는 동문들이 모여 맑게 개

인 가을의 자연을 즐기면서 한 자리에 앉아 다정한 담화를 즐기면서 푸짐하게 준비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올해 여름을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회계연도에 임원 및 집행부로 수고한 동문들을 인준하였고, 처음으로

워싱턴 동창회 : 장애우를 돕기 위한 '음악이 있는 가을밤' 콘서트



동창회 주최 '이웃을 돕는 자선 음악회' 성료

워싱턴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장경태, 사대 75)가 주최한 장애우를 돕기 위한 '음악이 있는 가을밤' 콘서트가 지난 달 12일, 북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부근에 있는 마살고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방은호(전 워싱턴 동창회장, 약대 43) 동문이 명예대회장을 맡고, 손재욱(가정 77) 미주총동창회장이 대회장을 맡았다.

이날 콘서트는 서울대 출신으로 현재 피바디 음악 대학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의 무대로 구성됐다.

출연진 구성과 곡선택 등은 같은 대학교 문운희 교수(음대 66)가 지도를 맡아주었는데, 연주자들로 플루티스트 왕주연(음대 03), 바이올리니스트 김기원(음대 07), 첼리스트 김주현, 성악가 박종혜(소프라노)·김태

환(바리톤, 음대 10), 피아니스트 안현정(음대 10)·박민영(음대 07)동문들이 함께 했다.

해설 및 진행은 김정은(음대 04)동문이 맡았는데, 오페라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의 유명 앙상블 곡들을 멋지게 소화한 박종혜(소프라노)·김태환(바리톤) 동문의 성악 무대와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카르멘 판타지'를 열정적인 플루트연주로 선보인 왕주연동문의 공연은 초가를 밤 음악회를 찾은 300여명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다. 또한 작곡가 피아졸라의 강렬하고 열정적인 '누에보 탱고'의 대표곡 <사계>중 '가을'과 '봄'을 연주한 김기원(바이올린), 김주현(첼로), 박민영(피아노)동문의 피날레 무대는 관중들을 압도했다. 특히 장애우들을 대표해 무대에 선 조제문 군(로빈슨 고교 11학년)의 클라리넷 연주는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워싱턴지역 동창회는 이번에 제3회를 맞았는데, 많은 동문들이 후원하여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특별히 지난 해 LA로 이주한 박옥수 동문(문리대 48)도 음악회에 후원금을 보내 주어 각별한 정을 표시해 주었다. 장경태 동창회장은 "세계 무대로 나가는 후배들을 초청해 꿈을 심어주고 한편으로는 동포사회에 작은 밑거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행사에 젊은 후배들도 큰 보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기관으로는 버지니아 한미장애인협회(회장 김영옥),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 전국 아시아인 아메리칸 전문직여성협회(회장 비비안 김),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이연옥), 워싱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쁜소리방송 등이 후원했다.

본 음악회 결산결과 음악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6,700여불이 버지니아장애인협회, 한미장학재단,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가정상담소, 동창회 특별기금 등에 보내졌다.

북가주 동창회 : 등산모임 / 모교 태권도 동아리 방문



등산모임, 'Zinfandel Hiking Club'

북가주 동창회는 2년 전에 등산모임, 'Zinfandel Hiking Club'을 결성하고 매주 토요일 San Jose Stevens Creek County Park에 위치한 Picchetti Winery Parking장에서 만나 Zinfandel Trial 왕복 4마일을 걷고 있다. 최승희(81사회대) 총무가 이끄는 모임의 현재 회원은 30여명이며 매주 15~20여 명이 참석한다.

었다. 모임에서 준비한 송편을 비롯 동문들이 가지고 온 커피, 과자, 음료수, 과일, 견과류등을 즐기며 미국 땅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동문 선후배가 환담하며 회기애애한 분위기에 한 컷 취해 보았다. 선후배간의 느낌을 받기 보다는 형제자매의 정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동문회가 있는 한 Zinfandel Hiking Club은 영원할 것이다. <홍경삼(문리 61) 이사장>

모교 태권도 동아리 북가주 방문

서울대학교 태권도 동아리(지도교수 김정환) 6명의 학생들이 8일부터 12일 까지 UC버클리 무도연구소(UCMAP·소장 안창섭) 초청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도착 당일 저녁부터 도복을 입고 도장에 모여 몸을 푼 학생들은 이튿날 UCMAP의 체육 수업에도 참가하는 등 미주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UCMAP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일정을 마친 11일 저녁 오를랜드 고기타일 식당에서 UCMAP 관계자, 서울대 북가주 총동창회 임희례(간호대73) 회장과 만찬을 나누는 김정환 교수는 "작년 태권도 국제학회 방문차 한국을 방문한 안창섭 교수와 민경호 UC버클리 명예종신교수와 인연이 닿아 태권도 교류와 관련한 자매결연을 맺고 올해 처음으로 북가주를 방문하게 됐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유일하게 비유단자로 이번 교류에 참석해 누구보다 열정 어린 땀방울을 쏟았다는 김도연(고교미술사학과 2학년) 양은 "새내기시절 빈혈이 심해 고생했는데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 싸 나왔다"며 "건강한 체력과 올바른 심성을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의 장점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공학과 3학년)군은 "해외에서 좋은 인프라를 구성해 태권도를 더욱 열심히 연마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극제가 됐다"며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정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줄 오른쪽 첫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창섭 UCMAP소장, 김정환 지도교수, 민경호 명예교수, 임희례 총동창회장, 유근배 사장, 김도연, 기유경양, 김홍균, 김주현, 박영록, 최지훈군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바이오

록키마운틴 동창회 : 골프모임



9월 26일 콜로라도 Aurora에 있는 Meadow Hill Golf Course에서 록키마운틴지역 동문과 부인들 10 분이 참석하여 함께 골프를 즐겼고 저녁은 표한승 동문이 후에 참석하여서 덴버의 신라식당에서 11분이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해룡동문(농대80)께서 우리 동문회의 공식으로 있는 총무직을 맡아 봉사해 주시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Siverthone, CO로 이사오신 위장호(의대67) 동문께서 참석 하셔서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우리들의 모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모임 동문들의 집이 정해지면 참석하시는 동문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갖고가서 함께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다음번 모임은 우리집에서 하자고 제의

하였고 날짜는 10/17, 토요일 오후 5시로 정했습니다. 저희집 주소는 "1852 Diamond Head Drive, Castle Rock, CO 80104" 입니다.

한 동문께서 우리집에서 모임 때, 제 처의 Harp와 저의 Cello로 Bach의 "Arioso" 를 연주하라고 부탁하였고, UNC의 Music Professor Dr. C. Moore 가 우리 부부의 하프와 첼로 이중주를 위하여 특별히 편곡된 그림은 금강산, 얼굴, 망향, 찬송가 등 몇 곡도 고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동문 중에서 한국가곡이나 다른 Classical Music 연주를 하실 분은 연락해 주세요. (Grand Piano가 준비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보다 좋은 친교를 나누고 또 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여러 동문들께서 10월 17일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요준(의대 64)회장)

뉴욕 동창회 : 농대 동창회 연례모임 / 골든 클럽 9월 आय회



골든 클럽 9월 आय회 성황리에 개최

뉴욕지역 골든 클럽(이준형, 정인식 공동회장)이 지난 9월 23일 수요일, 뉴욕근교 Tallaman State Park에서 클럽 회원과 동문 등 모두 5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피크닉을 다녀왔다. 추분답게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와 화기에 한 분위기 속에 참가자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모듬 참치회와 조개구이, 광어회를 안주 삼아 맥주와 소맥을 마시며 서로의 안부와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야외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던 노용면, 김중용, 최수용 원로회원 내외분도 자리를 함께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점심은 Korean Barbecue 스타일로 다양한 한국 음식과 LA갈비, 고구마, 옥수수 등을 맛있게

구워 먹으며,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회원 가족 간에 친밀감도 더욱 돈독해졌다. 오후에는 푸짐한 경품을 걸고 보물찾기와 풍선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행사를 마무리하고, 피크닉 장소 주변을 말끔히 청소한 후, 다음을 기약했다.

이날의 행사를 위하여 많은 회원이 도움을 주셨다. 정해민 회원은 모듬 참치회와 조개구이, 최철용 회원은 푸짐한 광어회, 이흥빈 회원은 주류 일체를 회사해 주셨다. 손경택, 이대영 부회장은 경품, 선물 및 멋진 사회를 준비하셨으며, 특히, 이날 행사의 음식 대부분을 준비하신 홍중만 부회장 부부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준형, 정인식 공동 회장은 행사 비

**필라델피아 동창회
김금자 동문 노리스타운 아트클럽 공모전 수상**



GNAL AWARD OF MERIT GRAPHICS PROFESSIONAL
HOBBY
ALICE CHUNG
GRAPHIC ETCHING \$ 120

필라델피아 중견화가 김금자(간호 63) 동문이 지난 9월 20일 Greater Norristown Art League가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Etching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필라델피아 시내에 위치한 Philadelphia Foundation과 The Plastic Club에서 작품을 전시 중이다.

뉴욕 농대 동창회가 9월 19일 토요일, Demarest NJ에 있는 이전구(농대 60) 회장실에서 연례모임으로 모였다.

동문들과의 친목 유대 관계가 특별히 돈독한 농대 동문들은 매년 농대 자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김도명 뉴욕 차기회장을 축하하는 모임이었다. 특별히 홈페이지로 이전구 회장실에서 준비한 건강음식, 건강음료가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몇몇 몸이 불편했던 동문들도 건강을 되찾아 다시 참석하여 훈훈한 동문간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주소가 바뀐 동문들과 이메일을 업데이트하는 등 앞으로의 동문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동창회 진목을 구축하는 방향을 의논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동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전구(직전회장), 김도명(회장), 엄선영(부회장), 이기덕, 손경택, 최철용, 이영애, 최한용, 정구홍, 신윤남, 이대린 동문.
(허유선 편집위원)



음으로 \$300 씩 기부하셨다. 이번 피크닉 행사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야외행사임으로 초과액은 클럽 예산에서 지출되었다.
(김원영 편집위원)

게시판

앞으로 있을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1 남가주

1. 서울미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박영국) 13회 미술동문전 10/17-30일까지 Lee & Lee Gallery 에서 열립니다. 출품 동문 23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화자, 윤태자, 성수환, 박영국, 김구자, 신정연, 손남수, 최열자, 홍선애, 김윤진, 신동인, 심영자, 김순진, 한석란, 박혜란, 박혜숙, 박다애, 박영구, 오성주, 김경애, 김영희, 강인선, 임그레이스
2. 서울대 코랄 연주회: 11월 예정입니다.
3. 원로선배의 밤: 11월 12일(목) 예정입니다. (문의: 박혜옥 남가주총동창회장 818-606-6503)
4. 부고
독고량(대학원77), 서정화(음대80) 부부 동문님의 부친 되시는 독고 토마스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9월 23일 LAdml 성 바실 천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2 조지아

1. 가을 열린음악회: 11월 1일
조지아 동창회(회장 강창석 의대73)가 후원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자 박민 동문)가 11월 1일 오후 5시 돌루스 귀네퍼포밍아트센터에서 '가을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소년소녀들에게 창조적 미래의 꿈 심어주기'(Wish it, Dream it, Do it.)를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에 '피스 앤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문의: 314-363-8396)

3 시카고

1. 장학생 모집
시카고 및 인접지역 2015년도 장학생(일인당 \$1,000)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응모 요강 및 응모 원서는 www.SNUAChicago.org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동문 유학생, 동문 자녀, 또는 동문들이 추천하는 기타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2. 오페라 동아리 모임
10월 3일(토) 10AM, 우리마을 (연락: 이영우 동문 630-237-2515) 점심 후 AMC Theater (301 Golf Mill Center, Niles)에서 이용훈 동문(모교 음대 교수)이 Manrico 역으로 출연하는 오페라 "Il Trovatore" 를 Theater Transmission 으로 감상 예정입니다.
3. 시카고 동창회가 후원하는 세종문화회(SejongCulturalSociety.org) Euny Hong (작가, 시카고 태생, "The Birth of Korean Cool" 의 저자, Amazon Best Book of the Month in August 2014)를 연사로 초청하여, 2015년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10월 18일에 Drury Lane 에서 가집니다.
4. 2차 이사회: 10월 24일(토) 5PM, 문화회관 Wheeling, IL (연락: 김용주 회장)
5. 연말 총회/파티: 12월 6일(일) 5PM, Drury Lane Oak Brook, IL (연락: 김용주 회장, 630-235-9387)
6. 부고
이춘우(의대 54) 동문의 부인 이안나 권사님께서 2015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향년 8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월 15일에 Ridgewood Cemetery(시카고언약공원 묘지)에서 천국환송 고별예배를 드렸습니다.

4 필라델피아

1. 음협 가을음악회
심희진, 김미순, 유미영, 채주원 동문들이 참여하는 필라 한인음악인협회 정기연주회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Philadelphia Korean Musicians Association 31st Annual Concert
제31회 필라한인음악인협회 정기연주회
Patriotic Spirit
2015년 10월 10일(토) 7:30pm
필라 안디옥 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문의: 고수지 257.471.7434
안준희 257.902.9372

나나나네네
Oh, Happy Day
L'ESTRO ARMONICO/VIVALDI- BACH

주최: 필라한인음악인협회
후원: 필라델피아한인회, 제향군인회, 필라한인대학교회

5 워싱턴

1. 장학생 모집
워싱턴지역 동창회는 2015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워싱턴DC 메트로 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동문유학생 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의 자녀들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일인당 년 1,000 불을 지원합니다.

서류제출마감은 11월 15일이며, 제출서류는 소정의 신청서와 재학증명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의생 특별기금관리위원장(703-467-9299), 장경태 동창회장(703-901-3770)으로 연락바랍니다.
2. 정기 이사회: 10월 31일(토) 오후 5시, 우래옥
3. 송년잔치: 12월 6일(일) 오후 5시, Westin Tysons Hotel (미주 의대 총동창회와 공동 개최)

제36차 SNU Homecoming Day 참가 예정자

10월 1일까지 참가를 신청하신 동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안 (의대 59, 뉴욕)	윤상래 (수의 62, 뉴잉글랜드)	허지영 (문리 66, 아틀란타)
유재섭 (전기 65, 뉴욕)	김동희 (공대 66, 시카고)	조봉완 (법대 53, 일리노이)
이전구 (농대 60, 뉴욕)	이영우 (문리 66, 시카고)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고일석 (보건 69, 뉴잉글랜드)	주중광 (약대 60, 아틀란타)	이성숙 (가정 74, 필라델피아)

체험기 샌디에고 동창회 Stargazing 행사를 다녀와서..

지난 8월 8일 토요일 밤에 Anza Borego에서 있었던 서울대 동문회 주최 Stargazing 행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뜻깊었던 행사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마치 점을 찍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별들이 밤이 깊어가면서 더욱 밝고 선명한 빛을 내면서 어둠을 태워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저 별빛이 수만, 수백만년 전, 감히 셀 수도 없을만큼 오랜 역사의 세월을 지나 여기에 도달한 것이라는 최흥수 선배님의 설명은 아름다움을 넘어,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의 덧없음이 느껴지는, 허무에 가깝게 아름다울 정도였습니다.



이 공유하는 숙소였는데 짐실은 2층 침대가 방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에는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사실 다른 게스트들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다른 사람들의 음식이 보관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이거나.. 짐작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곳이라 그런지 시설이 화려하고 좋지는 않아도 적어도 외관에서 봤을 때 보다 내부는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

이러한 구배하고 직접 준비한 밥과 불고기, 호박전, 계란말이, 오뎅볶음, 따뜻한 된장국에 마지막으로 찻고추를 넣어 주시는 그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와인과 스카치 및 간식거리도 넉넉히

이제는 저희끼리 캠핑을 가더라도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를 비롯하여 여름밤에 떠 있는 백조자리와 전갈자리, 티탄 자리는 어디서라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도 정말 재미있어 했고요. 한국에서 온 북학생 남동생도 별은 한국에서도 보초서며 지경도 몰랐으며 침엔 시큰둥해 했었는데 나중에 이 행사를 진심으로 즐기게 느껴져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눈으로 보기 힘든 별들과 작은곰자리도 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전갈자리, 궁수자리, 견우직녀성, 카시오페이아자리 등을 보면서 각 별자리에 얽힌 옛 이야기까지 곁들이니 마치 어린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힘들게 가져오신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토성도 보고, 이중 산개 성단, 나비 산개 성단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부엉이 성단, 그리고 수백만광년 떨어져 있다는 안드로메다 갤럭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 오

Stargazing 행사가 열렸던 Anza Borego는 샌디에고에서 차로 운전하여 약 1시간 40분정도 북동쪽으로 운전하여 가야 합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보니 저희가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밤에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추워 파카까지 꺼내 입어야 했습니다. 57학년 박우선 선배님 가족을 포함하여 총 6가족이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 박우선 (공대 57)/정해주 가족
- 김갑 (공대 62)/김은경/Alex Cho 가족
- 심상철 (공대 81)/심미리/유정자 가족
- 최흥수 (자연대 87)
- 오중호 (공대 90)/전경희/오예림 가족
- 조성환 (공대 97)/장은영/ 조형호, 조하은가족

저희 가족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바로 옆 모바일 홈에 화장실 및 사

또 이 행사를 더욱 의미있었던 점은 직접 6가족의 도시락을 싸오신 심상철 선배님과 사모님, 장모님의 정성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주부인 제가 너무 잘 아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도시락 컨테

도 준비해 주셔서 밤에 별을 보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번 이 행사를 주관해 오신 최흥수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날이 그동안 진행하셨던 stargazing 행사 중 가장 날씨가 맑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눈으로 보기 힘든 별들과 작은곰자리도 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전갈자리, 궁수자리, 견우직녀성, 카시오페이아자리 등을 보면서 각 별자리에 얽힌 옛 이야기까지 곁들이니 마치 어린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힘들게 가져오신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토성도 보고, 이중 산개 성단, 나비 산개 성단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부엉이 성단, 그리고 수백만광년 떨어져 있다는 안드로메다 갤럭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 오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을과 봄에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아이들에게는 무리일까요?

참가한 동문중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뚥뚥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수확은 분도 계시며, UFO를 본 것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영: 조성환(공대 97) 동문 와이프>

동문칼럼

Columbus, 신대륙의 발견인가? 침입인가?



이상봉 (문리대 65)

美國 Columbus Day의 유래

美國은 사실상 Columbus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Columbus Day 라는 것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제법 오래전에 일부의 미국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일인 '10월 12일'을 기념하기 시작해 1792년- 300주년이 되는 해에는 크게 자축을 하였고 있습니다. 그후 19세기 중반에 들어와 이탈리아에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오게 되자, 이민을 반대하는 단체(예를 들면, Ku Klux Klan)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한 反移民 단체에 대항하는 이민자들을 적극 후원하던 단체가 'Knights of Columbus'라는 이름의 Catholic 단체였다. 지금도 Catholic 內에 있는 그 단체의 이름에 Columbus 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렇다.



콜럼버스는 Colombo(콜롬보) 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카톨릭 신자였고, 이탈리아 폴루갈 스페인 등지의 여러나라를 돌아 다닌 사람이었기에, 이민자의 Symbol 같은 Image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후, 1906년 Colorado 州에서 이탈리아계인 Angelo Noce의 노력으로 Columbus Day가 州 공휴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1934년에는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에 의하여10월 12일이 연방 공휴일로 정해졌다. 그 후, 1971년에 Columbus Day가 '10월 12일'에서 '10월의 둘째 월요일'로 변경되면서, 우연하게도 Canada의 Thanksgiving Day와 일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Columbus Day 는 'Columbus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충성, 시민권 행사, 사회 발전 및 문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정 공휴일이기에 정부 기관, 은행, 학교는 休務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업체, 개인 사업체, 그리고 대중기관 등은 정상 업무를 보고 있다.

南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의 Columbus Day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에서는 'Columbus가 南美대륙에 상륙한 이후 150년 동안에 1억명에 달하

던 원주민들의 숫자가 300만명으로 줄어 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비극이 콜럼버스의 南美상륙에서 비롯되었다'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을 촉발한 침략자일뿐 존경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Venezuela의 Hugo Chaves (1954-2013) 대통령은 2002년, "10월 12일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라!"는 대통령 숙을 내리기도 하였다.

Columbus 비판 운동

Columbus의 비판운동이 표면화 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다. 즉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앞두고 National Geographic은 'Columbus가 우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Columbus를 보았다' 라는, 南美人の 시각을 소개하였고, 미네소타대 인권센터에서는 '콜럼버스를 사상 최악의 인물'로 모의재판에 기소 하였는데, 배심원들은 12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7개 죄목(노예범죄, 살인, 강제노동, 유괴, 폭행, 고문, 절도)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결하였고, 재판장은 죄목 하나마다 50년씩 계산하여 총산 3백50년의 사회 봉사 활동을 콜럼버스에게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콜럼버스 비판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미국 단체를 비롯하여, 5백주년 축제 준비위원장 William H. McNeill은 "어리석고 못내기 같은 판단"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Jeffrey Hart는 National Review에 실은 기고문에서 "콜럼버스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反美 좌익일 뿐"이라고 매도하고,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죽이기 위해 신대륙을 발견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Columbus 는 어떤 사람인가?

Christopher Columbus(1451-1506) 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中, 7-9위 내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누가 선정을 하던 간에 9위 내에 들어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Columbus는 1451년 이탈리아 Genoa

에서, 모직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배움이 거의 없이,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선장이 되었으며 읽기와 쓰기는 그나마 어른이 되어서야 깨우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는 이탈리아, 폴투갈, 스페인과 관련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영어로는 Christopher Columbus, 이탈리아어로는 Cristoforo Colombo, 스페인어로는 Cristobal Colon, 폴투갈어로는 Cristovao Colombo 다.]

Columbus의 탐험 항해

콜럼버스의 항해는, 모두 4번(1492-93, 1493-96, 1498-1500, 1502-04)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대서양을 횡단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탐험·개발·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콜럼버스의 탐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된 Columbus는 대서양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추게 되자, 1484년에 폴투갈王 주앙 2세에게, 1486년 1월에는 에스파냐(스페인) Ferdinand 왕과 Isabella I (Queen of Castile, 1451-1504) 女王에게 탐험 계획을 제출했다. 친동생인 바르톨로메우 이탈리아 왕에게 파견해 보기도 하고, 콜럼버스 자신도 프랑스에 한번 가 볼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492년 1월 2일Granada와 Alhambra Palace가 함락되면서 동 4월에 '항해를 허용한다!'는 협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협약의 내용은 - 기사와 제독 지위,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 그리고 얻은 총 수익의10%를 취득한다-는 것이었다.



▲ 뱃머리의 모습으로 세워진 필라델피아의 콜럼버스 터워. 사진:정홍택

그리하여 마침내, 1492년 8월 3일, Santa Maria 호 등 3척의 배에 12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Palos 항구로부터 Bahamas Islands중의 하나인 Watling섬에 도착했다. 바로 이 날짜가 신대륙의 발견일이 되는 것이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India)의 한 부분에 도착한 것으로 확신하고, 황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이 섬을 San Salvador (성스러운

구원자)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안들로부터 황금과 향료가 나는 땅에 대한 정보를 캐면서 Cuba섬(10월 18일)과 Hispaniola 섬(Haiti섬, 12월 6일)까지 항해했다. 그러나 1492년 12월 25일 밤, Santa Maria 호가 좌초되어 난파했기 때문에, 약 40여 명의 인원을 잔류시킨 뒤, 급히 귀환길에 올라서, 1493년 3월 15일 스페인의 Palos로 되돌아왔다.

첫번째 항해가, 성공이라는 평가 덕분에, 1493년 9월 25일에 출발한 두번째의 항해에는 17척의 배에 1,500명에 달하는 승무원이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Hispaniola 섬에 도착하자 승무원들의 희망과 기대는 실망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었고, 금광채굴에 징발되었던 원주민의 반란은 만성화 되게 되었다. 다급해진 콜럼버스는 약속했던 황금과 향료 대신에 반란을 일으킨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1495) 이사벨 女王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번째의 항해(1498. 5. 30)에 나선 그는 향료가 나는 섬을 찾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헛수고에 그치고 말게 되었다. 또한 섬에서는 콜럼버스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500년 8월, 콜럼버스 총독의 통치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섬을 방문한 사찰관 보바딜리아에 의하여 콜럼버스는 축제가 채워진 채 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다.

니콜라스 데 오반도 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된 뒤, 콜럼버스는 네번째의 항해(1502. 5. 9)에 나서, Panama 지협 일대를 배회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이 귀국해야만 되었다(1504. 11. 7). 이렇게, 네번의 항해를 마친 콜럼버스는 1506년에 54세로 죽었다.

특이한 모습의 콜럼버스 무덤



'스페인의 땅에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의 유언 때문에 서인도諸島の Santo Domingo에 매장되었다가 후에 쿠바로 이전되고 결국은 스페인의 Seville의 주교좌 성당으로 오게 되었고 땅속에 묻는 대신에, 네개의 조각상이棺을 들고 있는 모습의 무덤이 탄생한 것이다. DNA 조사 결과 그 관속에는 '콜럼버스의 뼈가 들어 있다!'고 한다.

맺는 말

이제, 이 글을 끝내면서 필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다! 『 Columbus의 신대륙 발견』은 新大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횡단하여, 두大陸을 오갈 수 있는 길(The Way)을 찾아낸 것'이다! 그가 찾아낸 땅이 일방통행적인 길로 변하여, 한쪽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된 '비극적인 역사의 길'이 되기는 하였지만.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생에게 SNULife ID가 없다는 건,

서울대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 이용할 수 있는 '스누라이프(snulife.com)'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이 커뮤니티는 15만여명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폐쇄형 인터넷 게시판이다. 최근 이 게시판에서 '타(他) 대학 학부 출신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커뮤니티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번져 서울대 학생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순혈주의(純血主義)'를 내세우며 타대 학부 출신 서울대 대학원생들에 대해 인신 공격까지 하고 있다.

대생들은 '분명히 다른 대학 학부 출신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관련 글을 다른 대학 커뮤니티에 유출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상당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

생 발언도 했다. 일부 학생은 "타대 학부 출신 대학원생을 배척하는 것이 인종차별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 "시대착오적 순혈주의"라는 글을 올리며 자제를 촉구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순혈주의' 논란

생이 '타대 학부 출신 대학원생은 서울대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스누라이프에서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거들고 나왔다.

스누라이프 운영진은 비슷한 논쟁이 한 차례 벌어졌던 지난 2월 "다른 대학 학부 출신 대학원 재학생도 학교의 연구와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구성원"이라며 계속 타 대학 출신 대학원생을 배척하는 글만 40여건 올라왔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게시글마다 20여개씩 수백건이 달렸다.

이들은 스누라이프에서 "타대 출신 대학원생이 아무리 노력했자 인식 자체는 수준 미달 '학력세탁중(學)'"이라거나 "남을 내 집에 들이기 싫는데 이유가 있나?" "대학원생은 총학생회장 투표권이 없는 걸 보면 주인이 아니라는 뜻" 등 타대 학부 출신 대학원생에 대해 인신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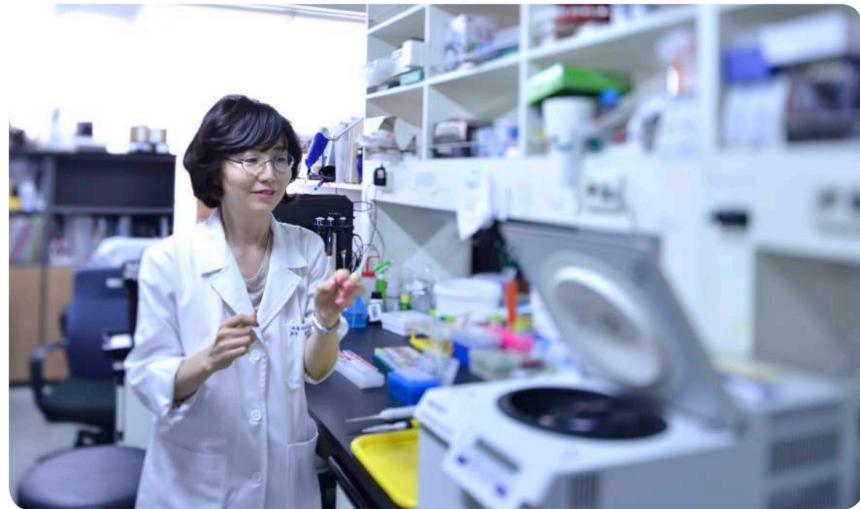
이화여대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화이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화이언이란 커뮤니티는 원래 다른 대학 학부 출신 이화여대 대학원생들도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梨花) 출신도 아닌 대학원생들이 '이

<조선닷컴>

* 다음을 주제로 한 글/사진을 news@snuu.org로 보내주세요: 11월호 '감사' / 12월호 '나눔' / 1월호 '희망'입니다.

동문칼럼: 목인희(자연대 82)

노인의 복병 치매



▲ 실험실에서 필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젊은 시절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평생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뇌 과학에 관심이 많던 나는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노인성 치매, 그 중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를 시작할지도 어느덧 20

은 벌써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독립된 연구자로, 교수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20여년의 세월이 고마울 정도로 소중하다. 나의 연구 주제는 ▲노인성 치매의 대표적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의 병인기전 연구와 ▲이를 환자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치료제 개발 및 조기진단방법 개발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렇게 신경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년이 넘어가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도전해 보고 싶은 미지의 영역이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던 기억이 난다.

사람은 기억이 자기 정체성, 즉 자아를 이룬다. 그 중심에 뇌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으면 인간은 허물어진다. 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으나, 뇌의 기억이 사라지면 살 수 없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된다. 50대 중반인 나도 노년기를 생각하면 치매에 걸릴까 두렵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과 학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백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은 서로서로 긴밀한 신경망을 형성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뇌 내의 신경망은 아주 긴밀하게 생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되어지지 않는 신경세포들이 죽기 시작하고 신경망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소실은 전체 뇌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특히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 (hippocampus) 부분은 눈에 띄게 작아지게 된다. 내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왜 이렇게 신경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보면 돌덩이처럼 보이는 노인반 (senile plaques)과 신경섬유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가 있다. 여기에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독성단백질들이 비정상적으로 뭉치고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찌 보면 20년 전에는 원인도 모르던 알츠하이머병이 이제는 그 비밀을 벗고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목표점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찾는 일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젊음과 열정을 바쳤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과거 20년도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열정과 호기심으로 푼돌 문헌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과 함께 20년을 하루처럼 달려왔던 것 같다. 그 결과 100 여편이 넘는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그 연구 성과의 주역인 제자들

연구를 해 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 소개하면 나의 연구팀이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나라 벤처 기업과 함께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다국적 기업 로슈에 기술 이전한 사건이다. 2010년 2억 9000만 불에 기술 이전을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전무후무한 바이오 의료계의 성과로서 2011년에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수여하는 여성과학자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요즘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조기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뇌 속에는 기억력 감퇴나 학습능력 저하가 일어나기 10 여년 전부터 뇌 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소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즉, 치매의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미 신경세포의 소실도 많고 되돌이킬 수 없는 뇌기능의 손상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무증상 단계에서부터 빨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연구 흐름이기도 하고 나의 연구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는 뇌척수액에서 특정 단백질을 측정하는 방법과 고가의 PET나 MRI를 찍어서 뇌안의 구조적 변화가 특정 단백질의 축적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가지 방법 모두 고령인 환자가 하기에는 방법이 힘들거나 가격이 비싼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혈액이나 소변, 침 등에서 간편하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생체표지자 (biomarker)를 찾아서 간편한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혈액 속에서 알츠하이머병 특이적인 표지자들을 찾아내면 뇌 영상 촬영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 환자의 검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권위자라는 수식어가 나를 따라 다니고 있다. 어찌가 무거워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요즘이 오는 경우는 마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뇌 연구의 중요성,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비롯한 뇌질환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 분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보니 기초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진입을 꺼리고 있어서 더 열심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21세기의 중반, 나도 50대 중반으로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뛰어보려 한다.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격동기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후반전에는 좌우도 살피고 패스도 잘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완속한 플래이어 겸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러한 노력이 고령화 사회의 큰 숙제인 알츠하이머병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할 뿐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고실 교수/주임교수)

동문칼럼 호기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곽금주 (가정대 77)

“사람들 왜 저래?” “아기가 돌이 무슨 애길 주고받았을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관한 호기심은 고양어도 죽인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모든 동물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호기심은 생명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호기심을 가질수록 획득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자신이 놓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 바뀐다고 가정할 때 같은 조건이면 호기심 강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과 동물의 호기심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동물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는다. 반면, 인간의 호기심은 ‘생존’과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획득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구와 연결된다.

강도의 차이도 확연하다. 인간의 호기심 욕구는 동물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인간(어린이)과 원숭이의 호기심을 비교했다. 두 집단 모

두에게 △신기한 기계를 보여준 후 △해당 기계에 관심을 보이고 작동시킨 집단에게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것. 결과는 흥미로웠다. 원숭이 집단의 경우, (기계를 작동시켜) 보상을 받은 무리만 기계 작동 원리를 추론하려는 호기심을 보였다. 반면, 어린이 집단은 보상 유무와 관계 없이 기계 작동 원리를 궁금해 했다.

인류 문명은 끝없는 호기심의 결과

특정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어 추론하는 능력은 모든 영장류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인과적 추론 과정에서 내적 동기인 호기심을 작동시키는 건 인간이 유일하다. 위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은 즉각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모든 현상을 궁금해하며 탐색한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주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식을 축적한다.

인간 특유의 영철적 호기심은 실로 많은 걸 창조해냈다. 수많은 작가와 발명가, 과학자가 바로 이 호기심 욕구 덕분에 새로운 작품과 발명품, 과학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호기심은 인간에게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 대한 탐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호기심이 새로운 관점 형성의 단초로 작용하는 셈이다.

‘워터페블 (waterpebble)’이란 도구가 있다. 사워할 때 배수구로 흘러가는 수량을 측정, 물을 아끼도록 도와주는 물



동문칼럼: 김인종의 신이 부르는 노래 ‘Dust in the Wind’ 2



(9월호에서 계속)

매달리지 말아요. 하늘과 땅 외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없어요. / 그건 빠져 나가버리죠. 당신의 모든 돈으로 단 1분도 살 수 없어요. Don't hang on. Nothing last forever but the earth and sky. / It slips away.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Kansas의 Dust in the wind 3절이다. 국민가수로 불리나? 최희준님이 ‘하숙생’에서 울등 - ‘인생은 별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흙은 다시 땅으로, 그리고 영혼은...”

전도자랄 ‘너의 어미의 자궁에서 발가벗고 나왔듯 발가벗고 돌아가리라’ - 도대체 이 인생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장사였단 말인가?

Don't hang on. 짐작하지 말아요. ‘중생이 스스로 중생을 자각할 때’ 영원으로의 귀가 시작된다더니...

이곡의 작사 작곡자 기타리스트이며 키보드(keyboard)였던 케리 리브그린은 영적으로 예민했다. 9살 때 할머니와 가족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에 심각해졌고(신달타를 닮았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 록 음악을 하면서는 힌두교에 몰두했다. 더스트 인 더 윈드의 가사가 그런 바탕에서 지어졌다.

그리고 1979년 7월 25일 새벽 3시에 그는 크리스찬이 됐다. 동료들은 그가 또 다른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나 생각했지만

건이다. 이걸 만든 디자이너 폴 프리스트만(Paul Priestman)은 어느 호텔에서 묵으며 ‘물을 아껴 쓰라’는 표지판을 보고 문득 궁금해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물을 아낄 수 있을까?’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사용자가 샤워 직전 배수구에 넣어둔 워터페블은 사용자가 샤워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수온은 어느 정도였는지 LED 조명으로 표시한다.

워터페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호기심은 ‘전에 없던 물건’을 발명해내는 창조력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누가 뭘 하든 무관심하고 세상만사가 심드렁해지는 순간, 창조나 개혁은 물 건너 가버린다. 이는 개인과 조직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물음표 달고 살아가 행복하다

호기심은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도 영향을 끼친다. 매사 비관적인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힘들다 보니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레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호기심은 ‘궁정’이나 ‘행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한 심리학자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호기심과 건강의 상관

관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의 호기심 정도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5년 후 그들의 생존율을 조사하는 방식이였다. 놀랍게도 연령과 흡연 여부, 질병 상태 등과 무관하게 호기심 많은 대상자가 더 많이 살아 있었다.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동물 실험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다. 종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호기심 많고 탐험적 행동을 보인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6개월 더 오래 산 것.



이 두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호기심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심리가 아니라) 생물의 건강, 나아가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욕구’란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아이들은 말 끝마다 “왜?”를 덧붙인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어쩌다 물음표가 떠올라도 스스로 유지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욕구를 감추려 한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호기심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조직과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면에 잠들어 있는 호기심 욕구를 흔들어 깨워라. 뭐든 궁금해하고 탐색하려는 자세를 갖자. 그리고 기꺼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원초적 욕구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라나 그 둘의 영혼은 쓰러지지 않았다. 2013년 8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케리 리브그린은 캔ساس 40주년 공연무대에 섰다.

인생은 ‘빠게스의 물 한 방울 a drop in a bucket’ 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것이 캔ساس가 노래한 ‘더스트 인 더 윈드’이다. 그러나 캔ساس의 케리 리브그린과 데이브 호프가 살아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더스트, 그 흙먼지에 부어지는 습결이 있다. 신의 습결.

흙은 원래 그랬듯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신에게로 돌아가리.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

캔ساس의 Dust in the Wind가 여분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김인종(농대 74),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My Story & Your History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절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Garrion 계신 수녀님은 순례자들에게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빛과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에서 서로 Share하는 선배 동문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후배 동문님들에게 Light와 For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ua.org로 동문님의 그리운 과거 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많은 동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이나?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01 이석호(Rocky Mt., 공대 66)



1. 공대 전자 66학번. 넓고 자유로운 땅에 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서 1978년에 씨애틀 국제공항에 내린것이 나의 미국생활의 시작이었다.
2. 장로교 세례교인의 집안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내린 가장 큰 선물이며, 내가 가진 것들 중 좋은 것들이 있다면 다 이것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3. 한국에서 살았다면 지금쯤 대기업 임원 선에서 명퇴하고 아내가 평생 재테크로 마련했음직한 가계의 바지사장 노릇이나 하면서 소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4. 책: Max Dimont의 "Jews, God and History", 장용학의 "圓形의 傳説", 김성환 단편집 "五分期"
- 영화: 흑백영화 "The Great Dictator", Serbia 영화 "Underground", 중국영화 "芙蓉鎮"
- 음악: 베토벤의 교향곡들, 도니제티의 오페라 "루치아"
5. 건강비결: 부인이 먹지말라는 것 멀리하고 하지말라는 것 삼가하면 평안한 天壽을 누릴것이요, 부인이 먹으라는 것 먹고 하라는 것 하면 天壽에 喜樂의 十歲壽를 더하리라. (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6.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문리대에서 순수과학을 전공했을 것이고, 좀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며 과외활동으로 문학이나 연극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까 싶다.
- Bucket List: 틈틈이 써 놓은 글들을 지인들이 쓴 글들과 함께 엮어 책으로 내고 싶다.
7. 동문들이 창작한 시나 수필, 소설, 만화등을 더 많이 싶으면 한다. 또한, 그간에 동문회지에 실렸었던 여러 동문들의 상기 창작품들을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것을 한번쯤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한다.

02 최선자(New Jersey, 가정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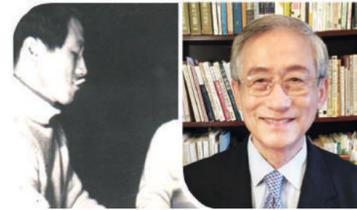
1. 76년 12월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원래는 Wisconsin으로 가게 되어 있었지만 지인이 있는 뉴욕으로 일단 먼저 가서 지도를 받자는 것이 그만 거기 눌러살게 되었다. 뉴욕 Columbia 대학에서 Nutrition and Public Health로 Master 학위를 취득하여 식품영양 방면에 종사하고 있다.
2. 나의 환란시절에 만났던 예수님이 좋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3. 40년 전 하와이 공항에 기착하여 들린 화장실에서 풍겨나던 아름다운 열대의 꽃향기가 얼마나 좋던지 아아 이것이 미국내수구나, 하고 좋아하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아마도 정계에 들어가 지 않았을까 싶다.
4. 책으로는 이문열씨의 변경, 음악은 비발디의 사계, 그리고 영화는 벤허와 타터 지바고를 꼽고 싶고, 음식은 비빔밥을 좋아한다.
5.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과 보리차를 많이 마시고 동네 공원과 골목길을 즐겨 산책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6. 심리학 공부를 하여 사람의 마음과 정서의 역동을 알고 싶다. 지금 미국 인구의 67%가 과체중이고 33%가 비만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사증후군으로 시달리고 있다. 만성 Dieter들은 음식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꾸준한 Diet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소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근원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유능한 Diet Counselor가 되고 싶어 정신분석공부를 하고있다.
7. 미주동창회보의 새롭고 깔끔하게 변화된 New Format이 마음에 든다. 각계각층에 경사하고 계시는 동문들을 찾아 그들의 소개와 경험과 지식, 인생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Mentoring Program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젊은 후배 동문들에게 가이드 역할이 되지 않을까.

03 김광호(New York, 문리대 62)



1. 미국 이민의 동기는 선친의 권유로 여동생(김명순 음대66)과 함께 유학을 위한 도미. 1970년 Columbia University 에서 MBA, Fordham 법대 졸업. 뉴욕주 퀸즈 검찰청검사를 지낸 후 현재 Kiss Products 근무. 뉴욕 맨하탄에서만 살아서 미국의 일면만 아는 것 같지만 맨하탄의 첫인상은 계속적인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 변화하는 도시 같았다.
2. 인생의 의미부여는 선친의 대를 이어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던 것과, 딸(Jane)이 변호사가 되어 3대 법조인 가족을 이룬 것과 이민자들의 정착단계인 신분확립, 경제자립을 넘어 주류 정치참여, 사회환원 단계에 이룬 이민자의 딸인 제인의 정치참여(샌프란시스코 시의원)가 자랑스럽다.
3.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도 현재 생활과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검사로 법조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4. 대학시절 읽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역사의 한 연구"를 감명 깊게 읽었고 저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갯스비", 그리고 셰익스피어 전집은 책 그리고 영화, DVD로 보고 있습니다.
5. 마음이 평안하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ound Body, Sound Mind."
6. 특별한 Bucket List는 없습니다.
7. 이미 동창회와 동창회보가 많은 선배 동문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濶古而知新"을 조금 광의로 해석하여,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기여와 후배님들의 참신한 참여를 유지 유지하는 동창회가 되고, 독자층의 변화는 수요를 파악, 충족시켜서, 공급을 증대할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회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4 정홍택(Pennsylvania, 상대 60)



- ▲포커페이스
1. 내 소개: 어쩌다 중류 가정에 태어나 친구따라 공부하니 어느 날 서울대 입학(우연의 연속). 남이 만들어 놓은 길따라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36세때 회사의 필라델피아지사에 발령받고 와서 현지법인을 만들어 놓고 사장하며 33년을 보냈다. 은퇴 후 <서재필기념재단> 회장, 필라교포를 위해 More-Bank를 설립하며 뛰다보니 지금 여기다.
 2. 인생 의미의 최고봉: 서울대에 들어가 동아리 데이터 산행에서 집사람 만난 일.
 - 철학적 생각: 얼굴은 영혼(영)의 집(굴)이니 오늘도 나는 내 얼굴을 보며 진아(眞我)를 찾는 내면여행을 한다.
 3. 미국의 첫 해프닝 : 생전 처음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안나와 혼자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아, 저기 영화에서나 보던 금발의 젊은 미녀(미국여자)가 내게로 (내 테이블로) 걸어와 나를 뻔히쳐다보며 서있는 것 아닌가? (주문을 받으려.) 너무 황송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못 알아 들었지만 나를 보는 저 파란 눈(지금은 보이지) 정말 여기는 美人들만 사는 나라라 美國이로구나 실감했다. (진짜 실하다)
 - 한국에 살았다면: 나는 월급쟁이 계속, 마누라는 부동산 북부인으로 평평거리며 살았겠지. (속이 텅 텅비어가는 속물 괴물되는 것은 모르고.)
 4. My Favorite Things: 혼자 숲 속 오솔길 걷기
책 :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백년의 고독 (G. 마르케스), 리스본행 야간열차(파스칼 메르시아)
영화 : 심야의 도망자(James Mason주연), Lord of the Rings, 채프린의 Modern Times
좋아하는 사람: 지금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싶다.
장소: 마누라와 함께라면 아무데나.
 5. 소식 (나와 식사해본 사람들은 아마 웃겠지. 그래도 나는 오늘도 노력하며 산다.)
 6. 다시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 난 내 잘난 맛에 취해 살았다(취생똥졸업). 다시 산다면 나는 시대를 숨쉬며 아래를 내다보며 고민하는 젊음으로 살고 싶다. (오미천송평작 <인간의 조건> 주인공 공 가지처럼)
영화 <박학사랑>을 보면서 난 부끄러웠다. 동시대인이었지만 난 의식화되지 못한 바보였다. 최근 <국제시장>을 보며 또 이들에게도 빛지며 살아온 인생인 것을 다시 느꼈다.
미래의 Bucket List: 내 생애의 마지막 숨을 쉴 때, 내 눈은 집사람의 눈과, 내 손은 집사람의 손에 잡히고 싶다. "우리 잘 살았지?"
 7.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창회보, 비 서울대인들도 읽고 싶어하는 동창회보를 만들고 싶다.

05 이영재(Texas, 상대 58)



1. 인생의 첫 발을 한국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은행 설립에 참여해 일하다가 미국과 영국 지점에서 일하며 <세계>라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2년 귀국해 보니 그 때가 암울한 유신정권 때였습니다. 10년 은행생활을 뒤로 하고 1973년 금강제화로 전직하여 뉴욕에 현지법인을 설립, 현지 사장으로 또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금융인으로 돌아가 교민들과 힘을 합쳐 미국 현지의 금융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 한국의 역사적 격동기에 태어나 학문을 배우고 한국의 급성장기에 해외에서 일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는 법을 습득했습니다. 뉴욕/뉴저지/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나름대로 교민들을 위한 팬아시아 뱅크와 모아뱅크의 설립과 경영에 열정을 쏟았고 지역 신문에 칼럼을 쓰며 1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중부 텍사스에 정착했죠. 근처의 서울대 졸업생들을 모아 <중부텍사스 서울대 지부>를 창립, 초대 회장으로 일한 것, 그리고 2011년에 모 음대 교수님과 함께 Austin Korean Harmony 합창단을 창단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도 이 합창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테너로 노래도 합니다. 매년 봄 정기 연주회와 병원을 위문공연을 하며 아직도 주위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데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3.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과연 이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중소기업이라도 사업을 했을텐데....., 격무에 술상무(?)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든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4. "The Original Illustrated Sherlock Holmes" "The Da Vinci Code" "Yeshu Hannosri (Joseph Costa, Ph.D.)"등을 재미있게 읽었고 제일 정든 곳은 런던입니다.
5. 음식이 제일 중요하네요. 제가 개발한 아침식사는 "영양 오트밀죽"이고 점심과 저녁은 영양사인 아내가 바꿔가며 준비합니다. 운동은 걷기와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사람들과 골프를 치는 정도입니다.
6. 외국 태생인 딸이 어언간 40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의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의 두 아이들에게 남길 <My Story>를 영어로 집필하기로 결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군요. 지금 Page 70을 쓰고 있는데, 이 때가 제 37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나의 기력이요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나의 펜은 나의 장년시절을 달리고 있습니다.
7. 필라델피아지부가 맡고부터 신문에 젊음이 느껴집니다.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06 원인순(New Jersey, 문리대 67)



1. 이민동기는 결혼 후 유학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 문리대에서 사회사업학과를 전공하였는데 미국에 와서는 컴퓨터로 전공을 바꾸고, Prudential에서 Programmer, System Analyst로 일하다 Retired 했다.
2. 대학시절부터 책임있는 생활 습관을 가졌고,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살아서 한동안 한국사회를 잊고 살다가, 퇴직 후 여가 시간을 한국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내고 있다. 인생의 의미라던가 아들이 정치에 입문 하고자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못한 사회봉사를 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3. 한국에서 살았다면 사회복지, 정신 심리계통의 social work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 같다. 미국에 올 때 한 친구가 '한국을 잊지 마세요'라고 한말이 기억에 남는다. 컴퓨터로 전공을 바꾸고 대학원을 마쳤을때, 나름대로 노력했다 생각되어 주위의 기대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4. 좋아하는 책은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서적, 클래식 음악 중 심포니의 장엄한 연주듣기를 즐긴다.
5. 겨울에는 주로 플로리다에서 보낸다. 골프와 에어로빅과 gym에 가서 기회있을 때마다 운동을 한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Bucket list는 딸이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다 같이 가는 것, 손녀 손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는 것.
7. 특별히 동문들께 요번 11월 3일 NJ 27 선거구에서 주하원의원에 출마한 아들 Won Kyu "Q" Rim(임원규)를 위해 투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임원규 주하원의원 후보



이제 40의 문턱에 선 임후보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이는 이웃사랑의 특별한 마음으로 현재 속해 있는 교회의 Mission Project를 통해 주변지역 및 남미지역의 인권옹호에 성원을 보내고 있고, 지난 10년동안 NJFPC (New Jersey Family Policy Council- 비영리기관)을 대변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회복을 위해 미연방 및 주 입법부에 로비(lobby) 활동, 그리고 청소년 (youth citizen)교육에 힘써왔다. 임후보는 Fordham 대학에서 B.A.(1996), M.Ed.(1998)을 획득했고, 현재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Nyack College 에서 Intercultural Studies에 적을 두고 있다.

현재 미정국적으로 한인 주의원의 숫자는 6개주(뉴욕,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조지아, 하와이)에서 총 8명이며, 뉴저지주에서는 한인출신으로 첫 도전이다. 임후보는 원인순(문리대 71졸) 동문의 아들로 가족이 44년간 같은 선거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관계기사 2015년 1월호 참조>

[평론] 나민애 동문의 시가 갖는 삶



나민애 (문리대 98)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천상병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되는 시 '귀천'으로 유명하다. 더불어, 사람들을 만나면 소주 사먹게 100원만 달라고 즐겼다는 일화도 유명해서 천상병 시인 하면 천진함과 어눌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천상병은 서울대 상과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똑똑하고 전도유망한 사람이었다.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일본어는 물론 미국 통역관을 맡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1967년 육살이와 고문을 겪으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1971년에는 거리의 행려병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소름조'라는 작품은 바로 그 즈음, 시인이 아픈 몸과 마음으로 여기저기 떠돌 때의 것이다.

몸은 상하고 집도 돈도 없는데 추석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야지. 시인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이 시에서 말하는 고향은 경남 창원의 진북이다. 그곳에 부모님

< 소름조-70년 추석에 >

천상병(1930-1993)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배기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는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 잠들어 계시니 보러 가야 하는데 갈 길이 없다. 여비가 없는 탓에 형제도 만날 수 없다. 이때 가난은 서러움이 되고 외로운 배가 된다. 이때 시인은 막막해하며 '두보'를 떠올린다. 한평생 객지를 떠돌며 시를 썼던 두보의 호가 '소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보처럼 외롭고 가난한 마음이라 해서 제목을 '소름조'로 붙였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난한 추석의 노레인 셈이다.

추석의 풍성함이 가을 햇살 같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석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상병의 '소름조'를 읽는다. 45년 전의 외롭고 슬픈 추석과 오늘의 외롭고 슬픈 추석을 잊지 않기 위해 '70년 추석에'라는 부제를 읽는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출처: 동아일보>

동문칼럼

나치 히틀러는 미술품들을 왜 약탈했나?



김광현 (민대 57)

나치 히틀러 (1889-1945)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각국으로부터 예술품들을 수없이 많이 약탈했다. 한 국가를 침략하고 동시에 제일 먼저 그 나라의 개인소유건 국가소유건 간에 유수한 미술품들을 마구잡이로 탈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왜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를 범하게 되었는지!

되고 또 작품의 창의성도 없다'고 혹평을 했다. 히틀러는 부모를 잃은 후 한때, 고아원 급으로 생활을 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과 우표 판매를 하며 미술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는 고향인 오스트리아 린츠(Linz) 실업학교로 진학하면서 '히틀러 자화상', '성모 마리아와 유년기 예수', '바다의 야상곡' 등 다수의 미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했으며 후에 그의 그림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나치의 잔재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다 소각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림그리는 소년 히틀러

1934년 8월, 나치 총통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미술품들의 약탈로 엄청난 범죄행위를 범한 히틀러는 그가 미술가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발단이 두 번씩 낙방의 비참한 고배를 안겨준 미술대학의 유대인 확장 때문이라는 '트라우마'적 행위가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한편 유대인들을 비인간적으로 중요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한 살인자 히틀러의 반 유대주의 사상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진화론에 기반이 됐으며 유명한 정치평론 및 비평가 들의 정치 관념인 '아리아 민족의 우월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살인자가 되었으며 그가 정권을 잡은 후 유대인들을 예술작가들이 되지 못하게 미술활동을 제한토록 했다.

히틀러는 초현실주의나 야수파적 현대 미술은 퇴폐미술로서 아리아인족인 독일인들의 정서를 오염시킨다고 경멸해 1937년 뮌헨에서 '퇴폐미술전'을 열어 112명의 야수파 작가들 작품과 당시

에 정신병환자들의 650여점의 '겉개' 그림과 바다에 띄운 전사로 야수파 화가들을 조롱하기도 했으며 또 몰수한 많은 작품 중 일부 작가들의 작품들은 태워 버리거나 팔아서 나치정권 유지와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또한 수도 많은 유명 걸작의 작품들을 여러 은밀한 곳에 숨겨 두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군이 발견한 제3국이나 기타지역에 미술품들을 숨겨놓은 곳이 무려 1000여 곳인데 약탈된 미술품을 찾기 위해 미군 공병대를 주축으로 7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리틀리'라는 350여명의 조직된 특수부대, '더 모뉴먼트 맨'(The monument men)이 1945년 7월, 종전에 즈음한 때, 700여년 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알타우세' 소금광산과 고성인 '노이슈반슈타인' 등에서 많은 미술품들을 찾아냈으며 한편 퇴폐미술에 출품된 작가들인 피카소, 르노아르, 마티스, 사갈 등의 작품들이 독일 문헌의 한 아파르트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더 모뉴먼트 맨'은 '히틀러의 손에서 미켈란젤로를 구하라'는 작전명으로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의 '인류문명의 큰 상징들'을 다시 찾는 작업을 계속해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성모자상', 1942년에 약탈한 '안 반 에이크'의 '겐트 제단화' 등 고전적인 유형의 불후명작들을 지하광산에서 찾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가 감추었던 미술품들은 세계2차대전이 종식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몰수된 작품들의 행방을 알지못하기도 하고 또한 현재도 많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명작들의 소유권 및 공소시효 문제 등은 미완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불후의 수많은 명작 예술품들이 세계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및 기타 각국의 많은 기관 등에 잘 전시 및 보존되어 있음은 인류 문화의 영구적 가치로서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 10여만 점의

미술품을 약탈해 갔으며 현대미술을 인정하지 않은 히틀러는 16,000여점의 작품들을 소각하거나 기타 외국에 팔아넘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찾기는 꽤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미군에 의한 특수부대는 1000년 이상을 통해 전래되어 온 문화의 표본인 미술품을 지켜내는데 큰 공헌을 했고 되찾은 미술품들을 원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데도 약 60여년이 걸렸다.

1938년, 히틀러는 세계정복의 과대망상에 의해 당대의 대 건축가인 '알베르트 슈페어'를 고용하여 인구 1억명의 세계의 최대 수도, '게르마니아'를 독일에 건설하라고 했으며 히틀러의 총총국인 오스트리아의 '린츠'에 초대형미술관인 '총통 뮤지움'(Führer Museum)을 지어 약탈한 예술품들을 모두 진열, 전시하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는 '제국미술관'(Imperial Museums)이라고도 하여 루이14세의 '루브 미술관'이나 교황청의 '바티칸 미술관' 또는 '영국대역박물관'의 규모를 능가하는 정치적 의미에서 출발하는 엄청난 규모와 역사적 명작들을 진열하는 계획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1945년 4월 히틀러는 그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언장에서 '나는 수년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향 린츠에 초대형미술관을 세우기 위해서 미술품을 모았을 뿐이다'고 했다.

그가 감추었던 미술품들은 세계2차대전이 종식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몰수된 작품들의 행방을 알지못하기도 하고 또한 현재도 많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명작들의 소유권 및 공소시효 문제 등은 미완의 문제가 되고 있으나 불후의 수많은 명작 예술품들이 세계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및 기타 각국의 많은 기관 등에 잘 전시 및 보존되어 있음은 인류 문화의 영구적 가치로서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다.

[시론] 세계 1등 천재도 못 들어가는 서울대



문병로 (공대 80)

드물게 몇 년에 한 번쯤 그런 천재가 출현한다.

우리나라 학생대표단을 이끌고 IOI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필자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천재가 득실거리는지 잘 안다. 올해 총 참가자는 327명. 모두 27명이 금메달을 받는데, 이들 중 1~3등은 따로 특별상을 받는다. 거기서 우리나라 학생이 희귀한 600점 만점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현장에서 MIT 교수에게 입학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이 학생은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휩쓸었다. 골프나 테니스로 치면 그랜드슬램에 견줄 만하다. 올림피아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라면 Codeforces는 대학생과 성인도 모두 포함된 세계 최대의 프로그래밍 대회다. 각국의 전설들이 출몰한다. 이 학생은 지난해 고교 2학년 때 여기서도 4등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고교생이 프로그래밍에 빠지면 당연히 학과 공부에 썩어야 할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 내신에서 상당히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 학생이 고맙게도 MIT보다 서울대에 오고 싶어 한다. 고교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수리적 사고력과 조직적 논리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동문신간

이상희(문리대 85) 동문 “현대 인류도 진화중… 최근 이르러 그 속도 더 빨라져”

고고인류학 책 '인류의 기원' 펴낸 UC Riverside 이상희 교수, 인구 증가와 의학의 발전에 따라 돌연변이-유전자 다양성 높아져 '원시인은 식인종?' 등 22개 주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흥미롭게 풀어 2015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인공 발골… 시대 넘나드는 대화가 이 직업 매력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자바인인, 호모 사피엔스...》 세계사 시간에 이 생경한 단어를 접하며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 분야는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고(古)인류학에 속한다. 고고학이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과거의 문화와 생활 방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고고인류학은 인골 등을 분석해 이전 인류를 연구한다.》

최근 출간된 '인류의 기원'(사이언스북스)은 고고인류학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인류의 진화 과정 중 이정표가 됐던 사건과 현재 고고인류학의 트렌드 등을 22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2012년 2월~2013년 12월 과학 전문지 '과학동아'에 실린 글을 보충하고 다듬어 묶었다.

저자는 이상희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49)와 윤신영 과학동아 편집장(36). 이 교수가 콘텐츠를 담당하고, 윤 편집장이 기획을 하고 글을 다듬었다. 이 교

이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2~3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 관련 이력을 적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적는 것 자체로 바로 탈락이다. 교육부 지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고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하면 되지 않겠는가?



서울대는 몇 년 전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관련 수상 실적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대로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고교 3년을 온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미쳐 생활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걸 제외하고 무엇을 적으면 말인가.

교과 과목만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기자 전형조차 몇 년 전부터 못하게 되었다. 특기자 전형이라면 각 학부는 어떤 분야에 특출한 자질을 보이는 학생을 10%라도 선발할 수 있다. 입시전형을 다양화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더니 이런 인재들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시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프로그래밍 조기교육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 프로그래밍 의무교육이 곧 시작된다. 미국은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 부족으로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마구 뛰고 있다.



▲ 이상희 교수는 '현대 고고인류학은 유전학과 해부학 같은 이과 학문과 역사, 문화인류학 같은 문과 학문의 통섭이 필요한 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는 사람을 기억하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 종족은 사람이 죽으면 팔다리 살을 지며내 남자들이 먹고, 내장은 여자와 아이들이 먹는다. 죽은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일부가 돼 동네에 계속 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고등동물이 된 인류가 현재도 진화하고 있는가'도 그가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는 "현재에 이르러 진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연변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고, 의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생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면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직군 입사 지원자들에게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해오다 이번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00년에 120명이던 정원이 이만저만 명목으로 감소되어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를 받는다. 종목 수도 많다. 지능 올림픽인 올림피아드는 세계 1등을 해도 병역특례는 고사하고 대학교 가는 데조차 드러낼 수 없다. 시간만 잔뜩 빼앗을 뿐 이 분야의 천재성은 입시 전형자료 어디건 조그만 힌트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이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몰 쓰듯이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정말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진정 꿈과 끼를 키우는 전형적인 예 아닌가.

서울대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쿠루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시체제를 강제로 떠안고 있다. 공부만으로 줄 세우지 말자고 하면서 입시제도는 딱 그렇게 율아해 놓았다. 그리하여 세계 1등이 2~3배수 안에도 못 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졌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에서 다리가 긴 젊은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도 진화의 한 예라고 봐야지요."

이 교수는 최근 고고인류학의 흐름도 소개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현생 인류가 모두 아프리카에서 온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아프리카 기원론'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생 인류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진화해 왔다는 '다지역 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70억 인류가 엄밀하게 따져 한반도의 한가죽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구를 아우르는 거대 이론은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아요. 고고인류학도 예외와 세부 연구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아담한 체구의 그가 미국 유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공을 발굴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불교 신도인 어머니는 "조상님 뼈를 고이 잠들지 못하게 해주고 다니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제르바이잔에서 인공 유적을 발굴했어요. 청동기 유골을 발굴하며 마치 그때의 인류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대를 넘나드는 대화가 가능한 게 이 직업의 매력입니다."

동문칼럼

일본의 건국신화



장수영 (공대 57)

양신 이자나기(伊邪那岐)와 음신 이자나미가 교합해서 처음으로 낳은 자식인 담로주(淡路洲)가 포가 되어 대팔주국(일본열도)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 명칭은 풍추진주(豊秋津洲), 이에주(伊豫洲), 축자주(筑紫洲), 역기주(巖岐洲), 좌도주(佐渡洲), 율주(越洲), 대주(大洲)와 길비에주(吉備豫洲)등이다. 그러나 담로(다무로)라는 말이 기분나쁘기 때문에 淡路(아와지)로 개칭하였다. 담로는 비류백제(沸流百濟)의 담로(擔魯)와 같기 때문에 김성호는 일본의 국가기원이 비류백제에 있다고 본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천조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오호미가미), 월독신(쓰구요미노미코도)와 소잔명존(스사노오노미코도)의 삼신을 낳고 천조대신에게는 동남구주의 일향(日向) 출운(出雲 이즈모)을 소잔명존에게는 천하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소잔명존은 난폭한 행동을 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청산을 시들게 하자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하여 고천원(高天原)에서 근국(根國 네노쿠니)으로 유배시켰는데 근국은 북구주에 있던 노국(奴國 나노쿠니)으로 비정된다.

일본서기(사진)에 의하면 소잔명존의 원적지는 웅성봉(熊成峰)으로 되어 있는데 웅성봉은 구마나리(久麻那利 곱나루)인 웅진(공주)이라고 보여진다. 소잔명존은 구마나리를 떠나서 신라국의 소시머리(尸尸茂梨)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살기 싫다고 바다를 건너 동쪽의 출운국(出雲國)으로 갔다.

한편 고천원의 천신 고헤산영존은 그의 외손자이며 천조대신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도에게 구슬, 거울과 칼 등 삼종의 신기를 주어 침구에 써서 지상으로 내려보냈

는데 그지점은 쓰쿠시 히루카(日向) 타카치호(高千穂)의 쿠지후루타키(久士布流多氣)였다 지상에 내려와서 “이곳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카사사(笠沙)의 꽃과도 바로 통하여 있어 아침해가 바로 비치는 나라 저녁해가 비치는 나라이다”라고 말하였다. 니니기노미코도가 지상에 내려온 쿠지(久士)는 바로 김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하는 구지(龜旨)에서 나온 말인데 고사기(古事記)의 저자 안만려(安萬侶)가 백제유민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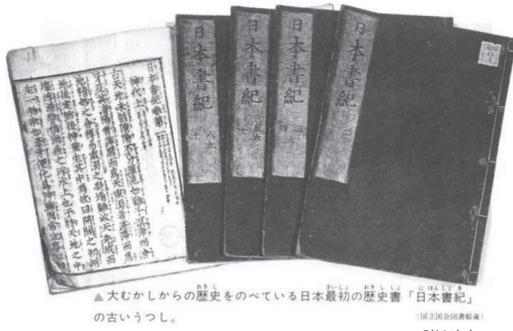
한편 천신 고헤산영존은 대물주신(大物主神)에게 팔십만신을 영도하여 황손 니니기노미코도를 영위봉호(永爲奉護)하라고 엄명하였다. 대물주신은 다물(多勿)과 관계가 있으므로 김성호는 이것 역시 비류백제 세력이 왜국에 진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손 니니기노미코도는 신대기(神代紀)에 있어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개조(開祖)이기 때문에 초대천황인 신무(神武)와 관계가 있어야 하나 신무는 니니기노미코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뿐아니라 신무천황은 15세때 황태자가 된 것으로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천황이 없는데 어떻게 황태자가 될 수 있는가?

또한 놀라운 사실은 천신의 엄명에 따라 대물주신이 받은 대상자는 바로 제10대 송신천황(崇神天皇)이었다. 그러므로 송신천황은 제10대임에도 어조국천황(御肇國天皇)이라는 개조(開祖)로 인식되고 있다 황손 니니기노미코도와 송신천황은 시조라는 공통성과 함께 이들의 건국지가 일향 출운(日向 出雲)이었다는 점에서도 일치된다.

니니기노미코도는 신화상의 인물이 아니고 그의 묘지는 미야자키(宮崎縣)의 서도(西都)에 있다고 한다. 한편 시마네(島根)현의 이즈모타이사(出雲大社)의 제신은 대

물주신인데 그의 신좌는 서쪽으로 향해 있어서 참배자는 그의 옆얼굴을 보게 되어 있고 참배자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어객좌오신(御客座五神)이다 참배자는 그 객신들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즈모타이사의 신관은 출운국조(出雲國造 이즈모고쿠소)라고 불리는데 제82대 센케다카무네씨는 대물주신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영혼의 고향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였다 대물주신은 천조대신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탈취당하고 죽은 것이고 객신들은 대물주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서기

그렇다면 왜 패배한 대물주신을 위하여 일본제일의 대신전을 지었을까? 대물주신은 단순한 평민이 아니고 한나라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커다란 원령(怨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잔명존은 천조대신보다 더 많은 신사의 제신으로 모셔져 있다 오사카근처에 있는 백제왕신사 입구에 백제왕 우두천왕(牛頭天王)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우두천왕은 바로 소잔명존이다. 그 신사에는 역대 백제왕들의 계보가 보관되어 있다. 소잔명존이 웅진출신이고 소시모리(牛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칭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본의 건국신화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

(전 포항공대 총장)

동문글

이대생 5000명 서울대생 8000명 고궁에서 짝지어 놀아



조화연 (문리대 61)

기아는 자전거 1대, 금성사는 라디오 한 대, 롯데는 겸 1만개 기증

1963년 11월 2일 밤 서울 창경원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8천여명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5천명이 합동으로 축제를 가졌다면 놀라워할 분이 많을 것이다. 5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가우뚱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이 역사적 행사에 직접 참가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0월 31일자에 크게 예고기사가 나왔다.

이 대학신문을 보면 이날 두 대학교 학생 합동 축제를 위해 롯데제과가 겸 1만개를 기증했으며, 기아는 자전거 한 대, 금성은 라디오 한 대 라희화학은 럭키치약을, 제일모직은 양복감을 장기자랑, 노래자랑대회 등의 경품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 대기업이 된 LG의 모태 금성은 당시 겨우 라디오나 만들고 있었고 기아는 겨우 자전거나 만들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서울대 문리과대학 영자신문 The Academy Tribune도 이 창경원 대학제를 톱기사로 보도했다. (아래 사진) 이 영문기사는 필자가 쓴 것이다. 당시 사회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0월31일자

이 전대미문의 서울대-이화여대 합동 대학제에서 KBS가 인기프로 “쫄 중의 쫄”를, MBC Radio는 “쌍쌍파티”를 녹음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엔 KBS가 흑백 TV만 방송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나마 비싼 TV 값 때문에 부잣집에서만 TV를 볼 수 있었고 서민들은 라디오가 거의 유일한 낙이었다.

영자신문 기사제목을 번역하면, “대학 축제, 화려한 계절의 대미를 장식. 5천 이화여대생, 8천 서울대생, 고궁에서 짝지어 놀아” 이 기사에 의하면, 그날 오후 3시부터 두 대학 학생들이 창경원 앞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으며

기마경찰이 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6시에 3개 옥외 무대 중 하나에서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도 자기 파트너를 찾지 못한 수백 명의 서울대생은 창경원 문 앞에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권 번호가 같은 남녀가 이날 밤 행사의 파트너를 이루게 되어 있었다. 짝을 찾은 두 대학 학생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춤도 추었다. 한국 대학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두 대학 간 합동 축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축제는 밤 9시 30분에 끝났다.



▲ 필자가 찍은 위 사진의 설명을 번역하면 “창경원에서 있었던 획기적 축제에서 서울대생들과 이대생들이 지금은 한물간 트위스트 춤에 빠져 있다”가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던 1960년대 초였지만 젊은이의 낭만은 있었다. 그날 합동 대학제에서 만나 결혼한 서울대생과 이대생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지금 한국 또는 세계 어디선가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작가, 미국생활영어 전 10권 저자)

동문신간

[미국계관시인론]과 [영국계관시인론]



백순 (법대 58)

시인들의 시 사상과 시 철학을 한국과 미주한인문학계에 알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 시평론집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인류문화의 근세인 19세기와 현세인 20세기는 ‘대서양시대’로서 영국과 미국의 문화가 인류문화를 지배하여 왔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주장을 아닐 것이다. 인간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시대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이미지와 은유로서 표현하는 시를 통하여 알아 내고자 하는 작업이 어찌하면 인간 삶안에서

평론가이며 시인이며 수필가이고 전 연방정부노동성 선임경제학자인 백순 박사(본보 전 주필)가 최근 시평론집 [미국계관시인론]과 [영국계관시인론] 두권을 ‘조선문학총서25와 26’으로 함께 출간하였다.

지난 2년 6개월동안 월간 문학지 [조선문학]에 연재하여 온 영국과 미국 대표 시인들의 시 사상과 시 철학을 한국과 미주한인문학계에 알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 시평론집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인류문화의 근세인 19세기와 현세인 20세기는 ‘대서양시대’로서 영국과 미국의 문화가 인류문화를 지배하여 왔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주장을 아닐 것이다. 인간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시대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이미지와 은유로서 표현하는 시를 통하여 알아 내고자 하는 작업이 어찌하면 인간 삶안에서

동문글 퇴계이황(李滉) 선생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전무식 (수의대 61)

자)로서 退溪가 嶺南學派(영남학파)의 中心人物 이었다면 栗谷은 畿湖學派(기호학파)의 中樞(중추적) 人物 이었다.

退溪는 宇宙萬物이 理와 氣의 두가지 要素 이루어 졌으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缺乏(결핍)되면 宇宙의 萬象을 제대로 表現 할수 없다는 理氣二元論(이기이원론)을 주장했다. 理와 氣의 道德的 價値를 說明할 때는 理는 純善無惡(순선무악)한 것이며 氣는 可善可惡(가선가악)한 것이므로 理는 絕對的 價値를 가졌고 氣는 相對的 價値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退溪는 인간의 心性問題를 分析할 때도 理와 氣의 絕對的 相對的 價値를 基礎로 하여 人性(human nature)을 解釋하였기 때문에 後日에 高峰 奇大升(기대승) 과의 四端七情(사단칠정) 문제를 가지고 朝鮮儒學의 最長期 哲學的 論爭을 惹起(야기) 했으며 그당시 대다수 學者들 사이에서는 가장 重要한 哲學的 논제로 膾炙(회자) 되었다.

慶北 安東 禮安縣(陶山面) 土溪里에서 左贊成(좌찬성) 이식 과 賢婦人 春川朴氏 사이에 7男 1女 중 막내로 태어났다. 出生後 7개월 만에 父親喪을 당하여 偏母膝下(편모슬하)에서 成長했다. 字는 景浩(경호)이고 號는 退溪(퇴거소상), 退陶(퇴도), 陶叟, 陶翁(도옹), 晩隱(만은), 등이 있으며 別稱은 李子, 李夫子, 혹은 東方朱子 라고도 불린다.

退溪의 思想과 信念

退溪는 栗谷(율곡) 李珥(이이) (1536-1584)와 더불어 16세기 朝鮮의 代表的인 儒學者(유학

의 참 모습과 진리의 흐름을 터득하게 되는 지름길 일지 모를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 순 박사의 두 시평론집은 근세와 현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동시에 영국과 미국의 시 철학을 터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영국계관시인들의 시 사상은? 15세기이후 영국왕실이 선정해 온 영국계관시인은 평생직이었다가 25대부터 10년임기직으로 바꾸어서 현재 26대이 이루어 있다. 이번 출간한 [영국계관시인론]은 19세기 이후 11번 계관시인들의 시 사상을 평론한 것이다. 그들의 시 사상은 영국을 서정의 대상으로 삼는 보수서정주의, 전쟁의 죽음에서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표출하는 지성인본주의, 그리고 2000여년동안 모든 분야에 침투되어 있는 정통기독교사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주의’라고 평하고 있다.



미국계관시인들의 시 사상은? 1986년 이후 미국국회도서관이 ‘미국고문시인’에서 ‘미국계관시인’으로 명의를경한 이후 2014년까지 19분의 미국계관시인을 배출했다. 그들이 은유하고 있는 시 사상인 ‘미국주의’ (Americanism) 는 (1) 미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을 들어 내는 미국 보수주의, (2) 흑백의 인종차별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 인권주의, 그리고 (3) 상대와 분리와 다양을 중요시하는 미국 후기현대주의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 순 박사는 “한국의 문우들(미주한인의 문우들이) 영국(과 미국)의 시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라고 평론집 서문에 서술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문인회(회장 권귀순)는 8월 22일 열린 ‘글사람방 모임’에서 동 저서에 대한 미니 출판기념회를 마련한 바 있다. 책은 저자 백 순(soonaik@hotmail.com)에게 직접 연락하면 구매할 수 있다.



小論으로 갈리며 東人은 南人과 北人으로 갈린다) 退溪와 栗谷은 南冥과 牛溪와 달리 일찍이 朝廷에 나가서 政治를 했으며 末年에는 落鄉해서 書院을 세우고 後學 養成과 學問 研究 및 著述 活動을 活發하게 하여 朝鮮시대에 가장 卓越했던 儒學者 班列에 오르게 된다.

栗谷은 退溪보다 35년이나 늦게 태어났으며 栗谷이 23세때 그가 尊敬하던 退溪(당시 은퇴하여 도산서원에서 후학양성을 하며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고 있었음) 선생을 陶山書院으로 찾아가서 첫 인사를 드리고 그의 가르침과 性理學에 관한 討論을 했었다. 栗谷이 떠나기 전에 人生의 指針이 될만한 箴言(잠언)을 付託(트리자) 退溪先生은 “持心貴在不欺 立朝堂成喜事” 라고 써주었다.

退溪와 栗谷

栗谷,李珥(이이)는 그와 同年輩 였던 牛溪(우계) 成渾(성혼)과 더불어 畿湖學派의 中樞의 人物 이다.

成渾의 時調: “말 없는 靑山이요 應없는 流水로다. 값없는 淸風이요 임자 없는 달이로다 이 중에 말없는 이 몸이 分別없이 늙으리라.”

退溪와 南冥이 이끌던 嶺南學派(영남학파)와 더불어 畿湖學派(기호학파)는 朝鮮 儒學의 兩大學派를 形成 했으며 朝鮮시대 朋黨政治(붕당정치)에서는 西人과 東人으로 分離 되었었다. (후에 西人は 다시 老論과

했다 {그 뜻은 ‘논어’라는 책에서 공자가 한 말로 학문과 재기가 넘치는 후배인 율곡이 두렵고 무섭다는 뜻임}.

이처럼 퇴계는 율곡의 天才性과 人品을 일찍 알아보고 稱讚(칭찬)을 했지만 退溪의 弟子들은 그때부터 栗谷을 嫉視(질시)하고 敵愾心(적개심)을 품고서 훗날 栗谷이 펼치려 했던 朝廷의 改革과 그의 政策을 反對만 해서 그는 結局 失望하고 自身의 身病을 憑藉(빙자)해서 政治에서 일찍 隱退하는 國家의 損失을 입게 되었다. (안젠가는 왜구가 침입해 올 것을 예상하고 十萬養兵說을 주장 했지만 동인들에 의해 묵살되고 결국은 壬辰後亂을 초래하여 막대한 국가적 재난과 피해를 당했다).

退溪의 死亡 消息을 接하자 栗谷이 쓴 輓章(만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였다 “슬프고 슬픈 일이다, 나라의 元老를 잃으니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고통구나, 내가 일찌기 배움을 잃고서 彷徨 할때에 그는 사나운 말처럼 날뛰는 잘못된 나의 길을 바로 잡아주신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동문들이 사는 이야기: 조동준(의대 57)

요리하는 남자



요리의 비결을 하나 더 이야기 한다면..

십여년전에 개업의에서 은퇴를 하고서 집에서 쉬다가 생각끝에 부업으로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아직도 하는 아내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요리를 배우기로 했다. 하기가 아내의 요리에 취미도 없으며, 요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 은퇴한 마당에 밥한끼 얻어먹기 위해서 아내에게 매달려 있는 것도 머시기하고 기본에도 거시기하지만, 또 혹씨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가장이 될 경우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양반 행세하기는 틀린 신세인 것 같다.

은퇴 후 그 사이에 사실은, L.A. 한인타운의 김치 Class에 세번 다녔었다. 김치를 내가 꼭 담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평생 그렇게도 많이 먹어오는 김치 제조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 한번은 김치를 직접 담아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더니, 친구들, 맛이 좋으면 다음에 담으면 사서 먹겠다고 했다. 나는 옛적부터 요리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고 살아온다.

집에서는 어머니 어계너머로 요리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대학생 때 서울에서 자취생활도 해본적이 있다. 원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 요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미도 있는 일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요리도 예술의 일종이다.

보기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이야기는 옛부터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특히 Desert 음식은 예술적 모양(Artistic Imagination)의 창조품이다.

20년전 즈음에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갈비와 만두를 만들어 놓고서 동래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저녁에 Porka Game 파티를 열고 지낸적도 있다. 사실은 만두만 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처지다. 한때는 만두를 제일 잘 만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Mcdonald Fast Food Company에 나의 만두 Recipe를 팔아서 잡비에 보태었으면 해서 회사에 접근을 시도했었는데, 실패했다.

그동안 만두는 50번 이상 만들어 보았기에 만두맛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믿지를 않으니 시작도 못해보았다. 만두는 역시 맛있는 속을 만드는 것이 요점인데, 나의 만두는 70% 두부가 속에 들어가며, 30% Ground Pork와 속주나물 등등 채소를 넣어 요묘한 Ingredient와 함께 Well Being 음식이 되는 것이다.

Mcdonald의 세계적인 Marketing Net-

work를 타고서 세계시장으로 나갔더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았을 터인데..... 일본사람, 중국사람 그리고 한국사람들등 동양사람이 만두때문에 Mcdonald 지점과 친해질 수 있고, 또 서양사람은 호기심이 가는 동양음식 만두 때문에 Mcdonald를 더 자주 찾게 될 것으로 상상을 해 보았는데..... 요리에 비결을 하나 더 이야기 한다면, 소금 간장 그리고 설탕 제까지 Ingredients를 적절히 잘 배합하면 대개의 맛은 나오게 된다.

내가 하는 요리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집착해도 되는데, 특히 잘하는 요리는 볶음밥, 만두 그리고 채소 볶음이다. 자주 먹는 된장찌개는 한 국사람에게 중요한 요리이고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된장찌개 제대로 끓이는 사람은 귀하고 식당도 극히 귀하다고 본다. 부산에서 살았기에 생선찌개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생선찌개를 제대로 만드는 식당을 아직도 찾고 있다. 된장찌개가 맛이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쉽고 아직도 내가 개발중이다.

이제, 아내는 나를 집에 두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다닌다. 가끔 늦게 집에 들어오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우리 DNA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첨부한다면, 나는 세 딸을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UCLA 대학교 Art College를 졸업하고서 언니를 찾아 New York City로 가더니, 돌연 French Culinary School에 입학하겠다고 해서 비싼 학비를 내고 졸업한지가 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Cooking Industry에 빠져서, 조기의 Passion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작년 부터는 세계 10대 Best Restaurant의 하나인 "Per Se"라는 식당에서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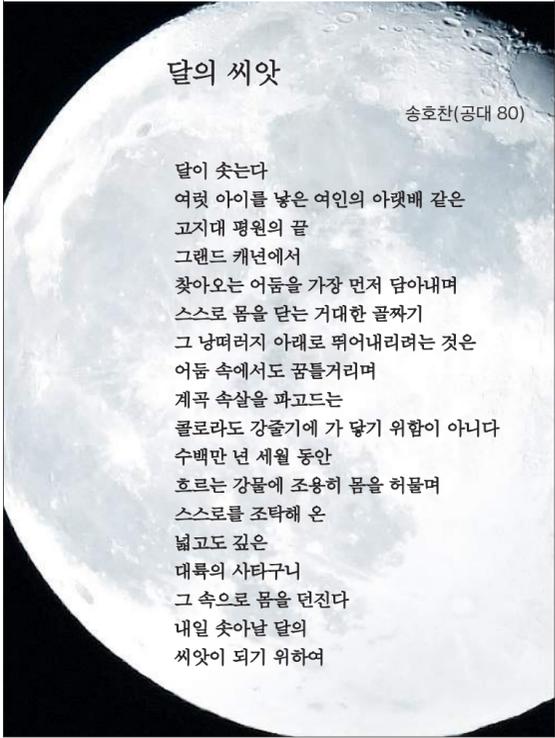
New York시에 있는 식당으로 작년 연말저녁은 \$1,000.00 짜리였다고 한다. 한변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나는 그런 비싼 음식 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집안 DNA를 좀 이야기한다면, 내 여동생은 이대 가정과 졸업에 대학에서 가정학으로 은퇴했으며, 딸의 할머니는 일본 사범대학 가정과 졸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정년은 퇴하였다.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 공덕귀여사가 여학교때 제자였으며, 대한가정학회회장과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주월영씨가 대학동창이라 하셨다.

어제 동네에서 은퇴 의사들과 골프를 쳤는데, 세사람 모두 세운으로 Sandwich를 만들어 온 것을 보았다. 이제 미국에서도 Sandwich와 Salad 정도는 남자에게도 상식이하의 요리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배워 남 주는 것 아니니, 은퇴한 분들 요리 좀 배우며 사는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닐지.....

동문시 “하늘에 걸어두니 참 밝구나”



달이 솟는다
여럿 아이를 낳은 여인의 아랫배 같은
고지대 평원의 풀
그랜드 캐년에서
찾아오는 어둠을 가장 먼저 담아내며
스스로 몸을 단는 거대한 꼴짜기
그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계곡 속살을 파고드는
콜로라도 강줄기에 가 닿기 위함이 아니다
수백만 년 세월 동안
흐르는 강물에 조용히 몸을 허물며
스스로를 조각해 온
넓고도 깊은
대륙의 사타구니
그 속으로 몸을 던진다
내일 솟아날 달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

동문수필 반지는 힘이 세다



손명세 (공대 60)

니, 손마디 쭈시고, 마디 허리 굽고 웅이 지고 반지도 거동이 불편하고 아내는 서랍 속으로 퇴역을 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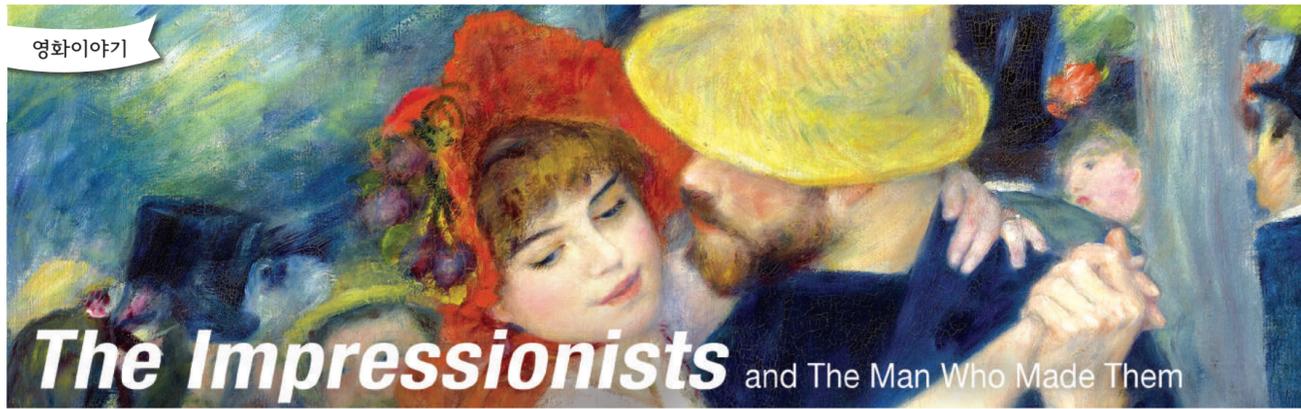
지금까지, 파도도 넘고 폭풍도 견디며 순항한 것은 반지의 힘이라 여겼었는데 반지가 퇴역한 다음 어쩌나 아내 눈치 보고 아내 간도 보고 자연 봉사애, 너그르위져 보기도 하고 반지의 잔열(殘熱)이 체온이리라 헤아리고..

비틀즈는 '내 나이 64세가 되면' 이라 노래했었는데 그 보다도 10년이 넘어서야 우린 며느리를 맞게 되었다. 아내는 반지를 꺼내더니 세공에 멋을 엮고 텀을 보태 며느리에게 주겠다. 그리, 한 울 안에서 한 술 밥이 되는 거라고 아하, 아내는 알았었구나 반지는 힘이 세다는 것을.

반지는 제왕처럼 힘이 세다는 것을.



*비틀즈의 곡 'When I am Sixty-four', 폴 매카트니가 10대 시절에 작사하고 25세 때 녹음한 곡.
*반지의 제왕,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3부작 환상소설의 제목에서



화가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럽 미술의 중심지 파리의 살롱전에서 외면 받고 심지어는 미친놈들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던 초기의 인상파 화가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생존했으며, '인상파' 라는 이름을 얻어 오늘날 가장 널리 사랑받는 그림들로 존속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은 미술애호가라면 한번쯤은 품어볼 만한 일이다. 이 질문에 2015년 5월에 개봉한 이 영화가 명쾌하게 대답해 준다.

록센부룩 미술관, 영국국립미술관, & 파리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금년 열린 전시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이 영화는 초기 인상파 6명 화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피사로(1830-1903), 마네(1832-83), 드가(1834-1917), 모네(1840-1926), 르노와르(1841-1919), 모리조(1941-95 마네의 제수씨), 등이 이들이다. 그러나 사실은 화가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들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의 그림을 사 준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가 바로 폴 뒤랑-뤼엘 (Paul Durant-Ruel, 1831~1922)이다.

뒤랑-뤼엘은 모네를 만나면서 전래의 아카데미화풍과 다른 화풍에 눈을 뗐다. 통속적인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고 새로운 미술(인상파)에 공감대를 넓혀가던 일단의 화가들(마네, 모네, 피사로,시슬리, 르노와르, 드가 등..)의 움직임은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의 포화로 잠시 중단되었다. 전쟁을 피해 런던으로 간 뒤랑-뤼엘이 모네와 피사로를 만나면서 새 그림의 역사가 시작된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군인의 길을 가려했던 삶의 행로를 바꿔 미술품딜러가 된다. 클로드 모네의 소개로 알

게 된 마네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그는 그 자리에서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통째로 사겠다는 제의를 한다. 23점의 그림을, 그리고 “너 없냐” 고 묻는다. 친구들이나 친자에게 가있다는 그림까지 몽땅 다 사들인다.

이 후 뒤랑-뤼엘은 많은 돈을 투자해 인상파화가들의 그림을 구입했다. 살롱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림을 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승산이 없는 도

인상파 화가들은 왜 굶어죽지 않았을까?

박이었다. 가져온 그림을 거절하지 않은 뒤랑-뤼엘. 그의 손을 거쳐간 11,000 여점의 그림들의 리스트가 그가 남긴 장부에 빼곡히 쓰여 있다. 낱짜, 화가이름, 작품명, 구입가, 등등. 물론 모든 그림이 인상파 그림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7, 8명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만큼은 열심히 샀던 것 같다. 생전에 그림 한점 밖에 팔지 못한, 그것도 동생 데오에게 판, 고흐(1853-90)를 보더라도 그렇다. 고흐가 죽을 때 뒤랑-뤼엘의 나이가 59세이다. 59세의 그는 어찌서 반 고흐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같은 딜러였던 데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까? 지금으로부터 120년쯤 전에 인상파 그림 한 점에 그는 500 - 3,000 불을 지불했다. 그 당시의 물가가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 인상파 그림들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 들었다. 그러나 판매가 문제였다. 그림은 창고에 쌓여가는데, 구매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1883년 전시한 모네의 그림 60점은 한 점도 팔지 못했다. 파산을 코 앞에 둔 직

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사들인 그림들은 다음과 같다: 모네에게서 1000 여점, 르노와르 1500점, 피사로 800점, 시슬리 400점, 마네 200여점, 드가, 시슬리 그리고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파리의 인상파화가로 분류되는 카사트 각각 400점 등이다. 이 중에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100여점을 다시 팔았고 개인적으로 인상파 그림을 가장 많이 수집한 필라델피아의 다티 반즈 (Barnes Foundation)에게 100여 점을 팔았다.

뒤랑-뤼엘은 1886년 300여점의 인상파 그림들을 미국으로 가져와 뉴욕 American Art Gallery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반응은 놀라웠다.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한 미국 대중과 평론가들은 이 새로운 미술(인상파)에 너그르웠다. "The American public does not laugh. It buys! Without America, I would have been lost, ruined, after having bought so many Monets and Renoirs. The two exhibitions there in 1886 saved me. The American public bought moderately. . . but thanks to that public, Monet and Renoir were enabled to live and after that the French public followed suit." 라고 뒤랑-뤼엘은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8년 미국 메이저 미술관에 인상파 그림이 영구적으로 걸리게 된다. 이는 파리의 미술관에 인상파 그림이 걸리기보다 훨씬 앞선 때의 일이다.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린 모두 굶어 죽었을거야' 모네의 말이다.. <김정현(공대 68)>

동문칼럼 **아는 만큼 보일까?**
예전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는 왜 그렇게 비유를 사용했는지 이야기를 즐겼을 때 궁금했더랬다. 직설적으로 설명하게 말하면 더 잘 이해할 텐데.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니." 예수는 독사의 자식들, 메시아의 구원의 진정한 메시지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이해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유는 알아듣기 어렵다. 비유가 담고 있는 화두에 관해 평소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작품이다. 여기서 그 설명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단박에 그 비유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
까닭에 배치되므로, 이만 함구하고 그 답을 각자의 '고민'에 맡겨야겠다. 한 가지 힌트만 주자. '샘'을 볼 때 그것이 이미 얻은 명성, 그에 대한 굳어진 해석을 잠시 지울 수 있다면, 그래서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인상을 되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샘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 물론, 비유의 온전한 해독은 오직 보는 이가 '미술'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해온 폭과 깊이에 달려있지만. 이 비유를 풀어냈던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뒤상을 극찬하고 스스로 뒤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그로 인해 뒤상의 '샘'이 2004년 터너상 시상식에 모인 각종 미술계인사들로부터 후대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세기 작품으로 뽑혔던 것이다.
고민의 폭과 깊이가 이해의 지평, 얇의 깊이를 좌우하는 상황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학기말 페이퍼를 받고,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듣고, 학술지 논문을 심사할 때도 관심과 고민의 지평이 학문의 깊이, 얇의 폭을 좌우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좋은 페이퍼는, 좋은 논문은, 좋은 학문은, 좋은 얇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석학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서울대 미학과 교수)

동문글

시인 곽상희의 가을 서신



곽상희 (문리대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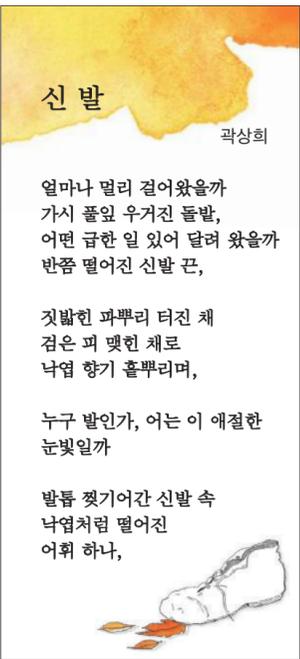
지난 여름은 참 더우셨지요? 나무 잎 흔드는 세미한 바람소리 따라 자박자박 걸어오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가 저 동구 밖에 아른거려네요.

그 첫 자락에서 시는 무언가, 시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시를 쉽게 쓰는 방법으로 15가지를 든 분도 계시고 물론 시는 삶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시란 삶이 풍기는 향기이며 뿌리이며 가지라고.... 오늘 그렇게 서두를 내고 싶네요. 그래요, 향기라 할 때 제일 먼저 얼핏 떠오르는 장미꽃 향기, 코카사스 협준한 산, 밤중에도 가장 캄캄한, 새벽이 뜨기 전 2시의 장미꽃 향기, 그것을 가장 향기로우므로 삼는 것도, 그러나 무엇보다 전 오늘 다른 향기, 우리말로 '내'를 말하고 싶군요. 날 듯도 말 듯도 한 이름 모르는 들꽃의 향기, 그러나 무엇보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먼 길을 걸어온 지친 아버지의 발가락에서 나는 먼지와 때가 묻은 텁텁한 내, 고단한 한 여름이 다간 후 저녁 밥상머리에서 정열거리며 아기가 파고드는 어머니의 젓가슴에 베어 있는 끈끈한 사랑과 정성, 인내의 내, 그런 내를 꿈 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은 얼마나 그리운 우리의 향내인가요, 삶의 구비 구비마다 세월의 가마솥에서 진득하게 익혀서 나오는 인생의 향기, 그 향내를 생각하며 이형기의 '호수'를 나누고 싶네요.

‘어길 수 없는 약속처럼/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나무와 같이 무성하던 청춘이/어느 듯 잊 지는 이 호수 가에서 /호수처럼 눈을 뜨고 밤을 세운다//이제 사랑은 나를 울리지 않는다/조용히 우리르 는/눈이 있을 뿐이다//불고 가는 바람에도 /불고 가는 바람에 이렇게 잠잠해 질 수 있는 신비는/어디서 오는가//참으로 기다림이란/이 차고 슬픈 호수 같은 것을/또 하나 마음속에 지니는 일이다), ‘낙엽’이란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형기(1933~2005)는 물론 우리의 전통 서정시인임은 틀림없지요.

우리의 서정을 깊고 선명하게 그리고 향기로운 운율로 조율하는 우리 현대의 서정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지만 하는 오늘날의 젊은 시인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쉬어가라고 좀 쉬어 가면 어떻나고 애절하는 안타까움을 이형기의 시에서 느끼는 것 같군요. (어떤 지각 있는 분은 그것을 ‘말춤’, 이해할 수 없는 없는 언어의 비비꼬임을 그렇게 언어의 말춤이라고 했지만)

‘참으로 기다림이란/이 차고 슬픈 호수 같은 것을/ 또 하나 마음속에 지니...’면서 잠잠한 신비에 젖는 일, 그런 신비로움에 젖어 세상을 바라보며 그 힘으로 시인은 세상을 정화한다 할까요. 기다림을 모르는 세상, 서둘기만 하여 분별없어 실수를 하고 혼돈으로 휘둘리는 우리를 사회여건들을 안타까워하며 시인의 아름다운 의무 맡는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또 떠오른 말 시인이 존경 받는 사회가 그렇다는 말,



신 발

곽상희
**얼마나 멀리 걸어왔을까
 가시 풀잎 우겨진 들밭,
 어떤 급한 일 있어 달려 왔을까
 반쯤 떨어진 신발 끈,**

**짓밟힌 파뿌리 터진 채
 검은 피 맺힌 채로
 낙엽 향기 흩뿌리며,**

**누구 발인가, 어느 이 애절한
 눈빛일까**

**발톱 찢기어간 신발 속
 낙엽처럼 떨어진
 어휘 하나,**

서두에 전 말했지요. 시는 삶의 향기란 말은, 향기는 시인의 순전한 감성과 서정에서 올라오는 정제된 언어, 그러나 거기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시는 여행이라고, 그 중에도 지도 없는 여행, 정신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아,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여행인가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고독의 여행 길이지만 끝내는 신비와 기쁨을, 영혼의 해방감, 지경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여행, 그 여행에서 시인은 예기치 않는 계시와 이해, 영혼의 풍성한 상(宋)앞에서 감

동과 행복에 젖기도 하지요.

어느 날 제 의식에 짙진 모양을 한, 때가 저리고 너털너털한 신발이 떠올랐어요. 그 때 전 어떤 고통스런 상념에 들어가 있었다 할까요. 그 상념의 파도를 타고 신발은 고통의 그림자, 외롭고 쓸쓸한 그러나 줄기찬 의지 같은 것을 고집스럽게 풍기고 왔어요. 전 팬을 들고 저의 의식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날 저는 미리 준비한 지도도 한 장 없이, 그러나 내 의식과 영혼 깊이 파묻혀 잠자고 있는 구겨진 지도를 폐기 시작했지요. 시는 풀어놓는 것, 시인의 속 깊이가 침윤되어 있는 감성과 사상,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선택된 주제, 아니, 내 마음 속에 아직 희미하게 잠자는 주제를 찾아, 아,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인가요! (전 여기서 잠시 ‘신발’이 어떻게 왔는가를 나누고 있어요.)

생각과 말의 흐름에 의존을 하며 따라가는 주제, (혹은 주제를 찾아가는 언어의 행렬) 전체를 어우르는 운율로 하여 서정시는 만들어진다든 생각을 하며 제 부족한 어느 날의 내면의 모습을 펼쳐 놓았다 할까요. 상기의 시는 조금만 음미하면서 들어가면 내용에 쉽게 젖을 수 있지요. 어떤 이는 시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의 대상으로, 또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또한 몹시도 기다린 사랑하는 이로 상상할 수도 있었지요. 몹시도 아끼고 사랑하여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달려온 근황과 사랑의 길, 신발을 의인화한... <발톱 찢기어간 신발 속/ 낙엽처럼 떨어진/ 어휘 하나.> 몹시도 아끼고 지키는 그 하나의 어휘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그대 인생의 또 한 자락의 깊은 계시의 체험을 함께 하시기를, 아유!



▲ 절은 안개 속 옛 순례자의 동상 앞에서

을 때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요. 무어라 말을 잊지 못하고... .

불편한 발을 절며 점심들을 먹고 있는 풀밭에 뒤늦게 합류하니 이미 식사를 끝낸 동행자들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피로를 풀고 있다. 참 편한 서구의 젊은이들! 사내들은 아예 상체를 벗고 일광욕이다. 여자들 몇몇도 흰 피부와 금발을 흠뜨리고 브래지어만 감싼 채 엷드려 별을 쾀다. 뺨 썩는 맛보다 눈요기가 더 좋구나.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내려다보며 난 감해 하는데 옆에 누워있던 털복숭이가 “Do you mind I’d be of some help?”하면서 상체를 일으킨다. 뭔가 좋은 약을 가졌다 싶어 “Not at all”하며 고마운 낯빛을 보이니, 이 친구 어느새 바늘을 라이터 불에 쬐이고는 실을 길게 낀다. 원발 물집이 한 덩이로 딱이 되어 어느 순간 터질 기세다. 나에게 고개를 돌려 꽃나무를 보라 하며 바늘을 열심히 두 차례 넣었다 천천히 당겨 물을 뽑은 후 칼로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연고를 넣으러기에 내 연

고를 사용하라고 건네니 자기 약을 써야 치료비를 받지 않겠는가고 농

동문칼럼

〈매기의 추억〉 올려퍼진 하얼빈의 정율성(정률성)기념관



이정식 (사대 72)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에는 그를 기리는 ‘인민음악가 정율성기념관’이 있다.(중국 조선족 표기로는 정률성) 정율성기념관은 하얼빈의 명동이라고 불리우는 중앙대로 끝부분 송화강변 가까이에 있다.

기념관에 들어가니 한국말 노래가 들린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유명한 미국 민요 〈매기의 추억〉(원제: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매기야, 우리가 젊었을 적에, 조지 W. 존슨 작사 제임스 오스틴 버터필드 작곡으로 1866년 발표된 노래)이다. 40대 이상 나이든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서 모르는 이가 없는 노래다.

중국의 대음악가 기념관에 한국가사로 된 미국 노래를 종일 트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작곡가일 뿐 아니라 성악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육성으로 남아있는 노래가 한국어 가사로 된 〈매기의 추억〉뿐이란다. 그래서 종일 그 노래만 트는 것이라고 했다. 목소리는 애뜻한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감격스럽다. 중국정부에서 만든 인민음악가 기념관에 귀에 익숙한 한국말 노래가 울려 퍼지니

어찌 그런 감상이 아닐 수 있겠는가?

정율성기념관을 하얼빈에 만드는 데는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인 조선족 서학 동씨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북경의 고(故) 정율성 선생의 딸 등 유족들을 설득하고 하얼빈 당서기의 허락을 받아 2009년 7월 정율성기념관의 개관을 이끌어냈다.

나는 지난 7월 11일 안중근의사 숭모



▲ 인민음악가 정율성기념관 (하얼빈)

회/기념관에서 조직한 ‘안중근의사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의 단장으로 하얼빈에 갔다가 이곳에 처음 들렀다. 기념관을 나온 후에도 〈매기의 추억〉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하얼빈에 가는 분들은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기념관 뿐만 아니라 정율성 기념관도 한번 둘러보면 서 정율성이 부르는 〈매기의 추억〉을 들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기념관의 조선의열단 설립과 약산, 김원봉 사진

기념관에는 또한 조선의열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인의 사진이 한 장 있었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에 1천만 관

객을 낚인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항일 무장투쟁단체 의열단을 이끌던 약산 김원봉(1898~1958)이다. 김원봉은 일제 때 백범 김구보다도 더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이다. 김구에 걸린 현상금은 60만원 김원봉에 걸린 현상금은 100만원이었다. 당시 100만원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화 200억~300억에 달하는 금액이란다. 오사마 빈 라덴에 걸렸던 현상금 5천만 달러(한화 약540억원) 전까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다.

좌파 항일무장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 부사령관으로도 활동했던 김원봉은 해방후 남한으로 들어왔다가 1948년 남북협상 때 김구와 함께 북으로 갔다가 눌러앉아 북한정권에

서 노동상까지 지냈으나 1958년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

남한에서는 빨갱이로 여겨져 독립운동사에서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로 거론되지 않다가 영화 ‘암살’ 영화 이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정율성 기념관에 김원봉의 사진이 기념관에 걸려있는 이유는 정율성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 처음 중국에 건너갔을 때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간부 학교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율성은 중국에 간 후 미국 작가 닐 웨일즈가 중국 연안에서 쓴 〈아리랑의 노래〉(Song of Arirang)주

인공인 김산도 알고 지냈다.

형들을 따라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정율성은 1918년 8월 13일 광주에서 출생(한국에서의 이름은 정부은),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형들을 따라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 상해 등지에서 작곡과 성악을 배웠다. 1937년에는 중국공산당 본거지였던 연안의 로신(魯迅)예술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였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입당, 〈연안송(延安頌)〉〈팔로군 군가〉등을 작곡, 발표하였다. 그후 〈팔로군 군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지정되었고 1988년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공식 확정되었다.

그는 1945년 해방후 북한에 들어가 〈조선인민군행진곡〉(두만강 〈동해어부〉) 등을 작곡했다. 정율성은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 중국으로 되돌아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북한)에 나왔다가 이듬해인 1951년 4월 중국으로 아주 들어갔다. 정율성은 중국에 돌아간 후 가곡, 가극, 영화음악분야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문화혁명기간(1966~1976)에는 4인방에 의해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율성은 주은래와 모택동이 잇달아 죽고 4인방의 몰락으로 문화혁명이 끝난 해인 1976년 12월 7일 오랜만에 외손자 등을 데리고 북경 인근의 운하로 고기잡이를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중앙악단 당시기에 올라 음악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던 정율성은 혁명음악가로 추앙되어 발표선 혁명열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여성경제신문대표)

동문글[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8>



이강훈 (상대 60)

얼었던 땅이 질퍽인다. 봄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나뭇과 대지가 험벗음이 부끄러운가 연일 짙은 연무에 싸여 있다. 철 이른 꽃들 - 알몬드, 배, 살구꽃 등 - 의 뽕내려는 하얀 자태를 방해한다. 그림보다 아름다울 봄 풍경을 좌우에 두고도 제대로 볼 수 없구나! 물집 잡힌 발로 가는 불편도 한결 덜 할 텐데...

천년을 넘는 세월동안 카스피해로부터 발탁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또 운 유럽의 이 왕국 저 교회 등이 자기 고장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을 돌보려, 교세를 확장하려, 경쟁적으로 순례길 요소에 건립한 성당과 숙소와 병원 등이 산티아고가 가까워질수록 갖게 눈에 띈다. 폐허가 된 곳들은 아마도 이들을 지원하고 유지하던 군주나 교회가 몰락했으리라. 흥망과 영고성쇠의 세월이 애달프다(지난 날 부여 낙화암에서 배마갈을 내려다보며 비슷한 감회를 느꼈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처처에 세워진 병원들 - 시대를 달리하여, 기독교

권 전역에서 설립하고 후원한 병원들이 다. 그만큼 끝없이 구도자의 행렬이 있어 왔다는 징표며 또 언어와 생활방식이 생소한 수행자들의 고통을 헤아린 연민 때문이었으리라.

초기 유일신앙을 뿌리내리면서, 또 그 후 성지를 탈환코자 투쟁하는 동안 그토록 살육을 저지른 기독교신앙 속에 이처럼 자애로운 면이 있었음이 참으로 난해하구나. 특히 내 가슴을 정하게 만든 것은 중세에 세워진 나병원들이다. 우리는 보듬어주시는커녕 천형 또는 천벌로 지목하며 기피하고 배타해버린 외롭고 가여운 나환자들! 언제 이들을 수용하고 치료료를 배폰 때가 있었던가? 개화가 앞섰던 일본의 감염 후에야 비로소 일부 수용 시설을 열었지. 우리의 방랑시인 - 마을에서 쫓겨난 탓에 - ‘한하운’의 『보리피리』를 아는가?

이 길 종착지 산티아고로 오르는 언덕길 양지쪽에는 ‘산 라사로 산티아고’(San Lazaro Santiago)라는 12세기에 세운 나병원과 예배당이 있다. 마치 막회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나는 이 병원 앞에서 발걸음

보리 피리 불며 ..
 ..봄 언덕 / 고향 그리워 / 필 - ㄹ 날리리
 ..꽃 청산 / 어린 때 그리워 / 필 - ㄹ 날리리
 ..인환의 거리 / 인간사 그리워 / 필 - ㄹ 날리리
 ..방랑의 기산하 / 눈물의 언덕을 지나 / 필 - ㄹ 날리리

동문글[여행기] 기적을 이룬 싱가포르 <完>



김명자 (문리대 62)

10여년 전 지진 후에 온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진주를 기르던 농장들이 완전히 무너져 떠나려 갔지만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되었는지 여러가지의 진주 목걸이를 \$20~\$30에 팔고 있어서 클라라와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다섯개를 샀다.

미국 딸라와의 환율은 큰 차이가 나서 외국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즐기고 있지만, 한국이 \$1,000인데 비해 이북은 \$8,000이고 이곳에서는 거의 \$14,000으로 환산되고 있으니, 우리의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소부, 웨이터들에게 \$2을 예의 수고비로 줄 때는 그들의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 기분도 같이 즐거워진다. 필리핀,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9

Ben, Well Camino! 고맙네! 그리고 앞날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계속>

기적을 이룬 싱가포르 <完>

개를 돌러볼 수 있었는데 문에 들어서면 큰 방에 여러 사람이 잘 수 있는 침실이 있고, 방을 지나쳐 층계를 대 여섯개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2층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딸들의 침실이고, 밤에 자는 동안에 딸들을 졸쳐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란단.

30년 후면 이나라의 인구는 3억이 훨씬 넘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수에 따라 직장은 늘지않고, 더군다나 교육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니 앞으로의 세계는 막막한 듯 하지만 그러나 신통한 해결책은 없다. 오죽하면 회교도 나라인 여기서조차도 3명까지의 산아제한을 부르짚고 있을까.

저소득의 나라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인구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잘 살 기회는 전연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안타까워진다. 지금이나마 자기를 나름대로의 무슨



▲ 발리의 힌두사원

다행히도 롬박에서는 사삭크(Sasak)마

P.S. 2015년 3월 23일 이관유 전 싱가포르 대통령이 91세의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는 50년 전 국민의 GDP \$400를 늘였는데, \$ 60,000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세계 일위?) 부정 부패가 범람하던 사회를 깨끗하게 바꾸어 놓았다는데 큰 존경을 보내고 싶고, 인공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또한 자기가 살던 집을 태우므로써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것을 막고 싶다는 현명한 두 마디를 남겼다. 나는 이 위대한 분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싶다.

참가 명복을 빕니다



故 김선자(간호대 67) 김창수(약대 64)동문 부인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지난 66년 간, 그 중에서 42년 간을 미국에서 참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틀 전 이승을 하직한 저의 집사람 김선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공사다망한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1973년 9월 23일에 이만을 왔는데, 2015년 9월 22일에 이세상을 떠났으니 하루도 차이가 없이 만 42년을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대단히 빨리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은 걸음걸이가 늦은 편입니다. 빨리 걷는 사람이 목격지에 먼저 도착하는데 저는 아직 제때하고, 걸음이 늦은 집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너무도 다른 사람 둘이서 이 세상에서 천생연분으로 만나, 참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 시점에서 생사가 갈리고,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집사람은 원래 타고난 건강한 체질이라 잘 먹고 잘 자고, 병원에서 저녁 근무를 할 때는 아침에 골프를 치고 나서 오후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본인 말대로 환소도 때려잡겠다는 체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4년 전에 폐암이 발견되어 한 쪽 폐를 잃었는데, 그러고도 건강히 잘 지내었습니다. 11년 전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증상이 와서 스텐트를 박았고, 7년 전에는 바이패스(우회) 수술을 하였습니다. 6년 전에 건강상 이유로 36년 간 일해 오던 Interfaith Medical Center를 떠나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분들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 후 서서히 건강이 나빠져서 한 2년 동안 제한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느긋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서 발병 후에는 더 천천히, 차분히 지내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뉴욕 생활 42년 중 36년 간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6년 간은 반대로 자신이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나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동안 저의 집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혹 음식도 챙겨 주시고, 집으로 혹은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집사람과 저를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통하고 때부터 서울에 유학을 와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고운 피부에 얼굴이 유난히도 희고 눈이 반짝거렸던 서울 색시한테, 그것도 학벌도 좋고 성격이 연애보다는 마누라감으로 더 좋다고 대학 친구가 소개해 주었던 재원한테 장가들게 되었다고, 우리 쪽 집안 식구들이 다 좋아하였습니다. 눈에 인정과 충기가 가득한 저의

집사람은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해 5월 집사람의 65세 생일카드에 “조심조심 건강 유지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의 첫 번째 성공이고, 당신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라고 적었습니다. 집사람은 평소애 주위에 자기만큼 팔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삶을 즐기고, 베풀고, 많은 것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부지런한 양반”, 나이 들어서는 “부지런한 영감”이라고 부르며, 제가 하는 일마다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요” 라고 흥얼거리며 늘 흐트러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을 썩거나 아이들 때문에 애대위 본적 없고, 직장 생활도 만족해하며,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 없고, 고민하지 않고 정말 마음 편하게 한 평생 잘 살다가 갔습니다. 집안에서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하며 본인이 대표로 아프고 당신은 아파서는 안된다면서, 집안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떤 불만이 없을까라는 저희는 참 가정 불화 없이 평안하게 지내었습니다. 단지 제가 50여년간 글을 쓰다 보니 신문·잡지 스크랩할 것이 많고 식탁이나 책상에 각종 자료와 원고지 등이 쌓이게 되면, 집안 어지럽다고 자주 치우 버리곤 하였습니다. 보면 신문 같은 것 늘어놓는다고 뉴욕에서 깔끔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소하고 유일한 불평마저 들 수 없게 되었고, 벌써 집안 곳곳에는 신문·잡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4 년 전에 쓴 한 수필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시를 읽을 때는 아내가 차를 끓여 내오고, 내가 읽어서 좋았던 시는 아내에게 읽어 주겠다고, 미혼 때의 꿈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은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직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여념이 없다. 모처럼 두 아이가 다 일찍 자는 날 저녁에는, 아내는 밀린 다리미질을 시작하고, 나는 여러 종류의 잡지가 쌓여 있는 책상 앞으로 걸어들어간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의 와이이프를 직접 빨아서 다리고 김치도 담그며 열심히 생활하다가,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야 와이이프를 세탁소에 맡기고 김치도 사다가 먹기 시작했지요. 맞벌이 하는 주부로서 남편보다 훨씬 늦게, 만든 김치 사 오고 세탁소에 와이이프 맡기기 시작한 셈입니다.

제가 그간 퍼낸 세 권의 책 중 첫 번째 책 <알기 쉬운 미국의 생활 경제>에 “한자(漢字)와 주산(珠算)을 가르쳐 주시고 글 쓰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신 선친(先親)과, 말의 논리를 터득하게 해주신 어머니과, 글 쓰는 동안 편안한 시·공간을 갖도록 인내해 준 아내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 후

집사람의 별명이 편안한 시·공간이 되었고, 저희 둘 사이에는 마이너스 스트레스가 존재했습니다.

작년 초에는 집의 패밀리 룸과 현관·홀에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온돌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그 깊고도 추웠던 계절을 바닥이 따뜻한 아래층 패밀리 룸과 부엌을 오가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추위를 땀는데, 온돌방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동안 애써 모아 온 한국화와 동양화로 가득 채워진 벽면에는 집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나, 방마다 깔린 오리엔탈 러그에는 집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면서 상대를 깎아 내리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반말도 하지 않고 “하계, 하오”체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집사람과 전화로 통화를 끝내면서 제가 “수고하오” 하는 것이 우스운지, 사무실 직원이 간혹 흥내를 내었습니다. “수고하오”하고.

저희 집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가구는 전부 고전풍의 토마스빌(Thomasville) 제품입니다. 특히 킵 사이즈의 베드룸 셋트는 마호가니여서, 여기 집사람이 누워 있는 이 관(Casket)도 마호가니로 만들어 졌습니다. 집에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영면하라고 제가 마호가니 관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부부를 믿고 좋아하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집사람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300분도 넘는 선·후배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인들께서 애도를 표하며 위로해 주시니, 저는 좌절하지 않고 여기 남겨 진 두 자매와 두 손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차후에 일일이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 뵙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남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저와 같이 다녀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길 조심하시고,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있어서 긴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분명히 내게 편지를 주었을 당신, 평생 남한테 남편 자랑, 자식 자랑 한 번도 안 해본 당신, 언제 가는 Pinelawn Memorial Park 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세상에서나 혹은 후세에 환생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다시 부부로 만나기를 기원하며, 편히 잠들기를 바라오.

이 세상,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멋있고,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수고하오!



<남편 김창수(약대 64)>

<동문들의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 1. 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대학, 입학년도 / 2. 주거 도시 (지역)
3. 유가족 소식, 친구의 추모의 글 등 (연락처)
4. 고인의 생전 이야기, 취미 등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식(미대55): 시카고 남편과 아드님이 8월27일 사고로 별세후 투병후 10월4일 소천
• 이안나 권사: 시카고 이춘우(치대54 시카고) 동문 부인 9월11일 소천
• 독고 토마스님: 남가주 독고랑(대학원77) 서정화(음대80) 동문부부 부친 9월23일 소천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Table listing names and amounts for various categories: 동창회비 (Alaska, Arizona, California, Hawaii, Illinois, Ind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vada, New England, NJ & NY), 광고 (Arizona, California, Colorado, Maryland, NJ & NY, Virginia), 업소룩비 (Arizona, California, Colorado, Maryland, Texas, NJ & NY, Virginia), 기타 후원 동문 (Arizona, California, Colorado, Maryland, Texas, NJ & NY, Virginia).

후원회비: Arizona (500), California (500), Colorado (500), Maryland (500), Texas (500), Virginia (500), Hawaii (200), Illinois (200), Indiana (200), Michigan (200), Minnesota (200), Missouri (200), Nevada (200), New England (200), NJ & NY (200), Ohio (200), Pennsylvania (200), Virginia (200).

모교발전기금: 김순덕(간호 61) 500, 임영자(간호 61) 500, 정명숙(간호 61) 500. 디자인 광고: 김광호(문리 62) 3,000, 김혜정(문리 82) 1,000, 유재환(상대 67) 1,000, 윤상래(수의 62) 400, 임낙균(약대 64) 1,500, 이승훈(상대 74) 1,800, 최정용(공대 64) 500, 차민영(의대 76) 1,000. Golf 후원금: 이진규(농대 60) 500, NE Chapter 100. 업소룩 광고: 김순주(치대 95) 240, 이종묘(간호 69) 240, 이상대(농대 80) 120, 이영일(문리 53) 400, 이재택(법대 60) 240. Website 광고: 김해정(문리 82) 500, K-Shopping 500.

제13대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IRS Tax Exempt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13-3859506

*주소: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100, Blue Bell, PA 19422 (문의: 484-344-5500 Ext.304)

* 다음을 주제로 한 글/사진을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11월호 '감사' / 12월호 '나눔' / 1월호 '희망' 입니다.

원/고/모/집/합/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콩트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독자의 광장>에 들어갈 회보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을 보내주세요.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신겠습니까. 가능한 한 글자수 2000자, 또는 단어수 500자 내로 해 주십시오(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더 짧게).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Green Hills Memorial Park Rancho Palos Verdes(Garden of Reflection)에 있는 가장 좋은 Family Place 대리석 있는 개인 소유 묘지 판매' 1)Family Estate 925 Space- A, B (side by side 2자리) 5만불 2)Family Estate 926 Space. 932. 933. 934 (8자리 더 있음) 현 시가 7만불 이상을 5만불에 팝니다. *Address: 27501 South Western Avenue,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장소 문의: 310-521-4333) *연락처: (818) 395-1967 *E-mail: opk377@yahoo.com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Tel.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 kangdon@att.net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 클리닉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우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612) 418-5393
P.O. 7416 Beaverton, OR 97007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1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건축 /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록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편집후기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general@snuua.org>로 보내주세요.

“주여, 저는 누구이고 저들은 누구입니까?” 매일 뉴스에 빠짐없이 방송되는 중동 피난민 대열을 보며 저절로 새어나오는 절규이다. “왜 나는 여기 있고 저들은 저기서 헤메야 합니까?” 지금 나의 처지가 참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왜 그들은...”이라는 물음이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그러다가도 동창회보 만들기의 시간 다름에 이르면 피난민들의 생각은 저 멀리 달아나곤 한다. 이 얇은 동정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줄타기를 한다.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대도 여기 지금 나는 열심히 동창회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스피노자가 가르쳐준 내 '사과나무'이기 때문이다.

〈정홍택〉

회보의 맨 끝자락 한 귀퉁이에, 아주 짧게 써놓아야만 되는 편집후기는 아무도 읽지 않을 것만 같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후기를 써놓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적으로 써놓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아무도 읽지 않을 것만 같다.

이러한 내 생각이 틀린 것일까? 내 생각이 틀린 것하기를 바라면서...나는 이곳에다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려 놓아야만 되겠다.

친애하는 동창회원 여러분들! 저의 편집후기는 읽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발, 동창회보의 다른 내용들 만큼은 빠짐없이 읽어 주시고,玉稿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이상봉〉

추석이 언제였는지, 보름달을 봤는지, 허리케인이 오고가는지,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마지막 편집회의 후 여러 편집위원님들이 달라붙어 교정을 보고, Final 인쇄판을 인쇄소에 넘기고 한숨 돌리나, 싶으면 다음호가 빨리 가자고 재촉한다. 매달 25일을 원고 마감일로 정했다. 마감일에 맞춰 원고를 보내주시

면 좋으려만, 마감 후에야 바쁘게(쏟아져? 아니, 쏟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들어온다.

허리케인 Joaquín이 가을비를 잔뜩 쏟아 놓았는데, 문득 창 밖을 보니 단풍나무 이파리 몇개 빠알강게 물들었다. 가을, 당신인가요? 〈편집장〉



사무장 이제니 디자이너 승보현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 (3.5" x 2") \$10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4")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 (Back 10" x 14") \$1,50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4 로()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서울대 미주 동창회 조직 임원단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 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임원

- 사무총장 | 차임경(가정) | 사업국장 | 한중희(공)
- 총무국장 | 심희진(음) | 섭외국장 | 박형준(공)
- 조직국장 | 백옥자(음) |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회보 임원

- 발행인 | 손재욱(가정)
- 주필 | 정홍택(상)
-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 편집/디자인 | 승보현
- 편집위원 | 김상돈(공)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이상숙(가정) ·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차임경(가정) ·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홍선례(음)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 Webmaster | 김원영(미)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 한재은(의)
-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감사

주기록(수의) · 박영철(농)

* 편집 / 디자인 : 승보현
* 인쇄 : TN Printing, Lehigh, PA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박해욱(간호 69)	818.606.6503	jennypaek2@gmail.com	Feb-Feb
	차기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907	byeongk@gmail.com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08.756.2042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이이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joosungk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hwan_oh@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294.2453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	wonlee@qbmintl.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김한섭(의대 63)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xy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 (상대74)
Tel: 562-633-7400

HAPPY SEEDS INCORPORATED
JW 토닉 삼푸
장경태 (사대75) 877-HAPPY-81
novita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삼푸 \$32 / 1병 500ml 토닉 \$50 / 1병 150ml
비데 BG 90,93 모델 \$499 (문반비 포함)

서울대 동문 10% 할인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예쁠 때 가고 싶은 사람
운명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
만남에 더 진중한 사람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사람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드ью
LA 213-383-2525
NY 212-947-2525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CCM 업계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CCM 인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BLUE BELL FAMILY DENTISTRY
www.bluebelldentist.com
블루벨 패밀리 치과 · 예약 전화 610.278.1110
각종 PPO 보험, 패밀리 케어 받습니다.
Dr. 박민국
U.PENN 치과대학 졸업(DMD)
Virtua Health, West Jersey Hospital 치과 레지던트 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Externship
Advanced Family Dentistry, Morton, PA 7년 근무
전 TEMPLE 치과대학 임상교수
대한 치과의사 협회 정회원
진료과목
임플란트 / 총치치료 / 치주치료 / 신경치료 /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발판교정/무통교정(visualign) 치아미백/어플리, 청소년 치과
임플란트
임플란트 전문의와 협진하여 최신의 기술로 정확한 진단과 전문화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곳
진료시간
월요일 8:30 AM - 4PM
화/목요일 10 AM - 7 PM
금요일 9 AM - 4 PM
토요일 9 AM - 3 PM
* 수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블루벨 패밀리 치과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블루벨 차이언티수퍼 맞은편)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원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뺨크 뺨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밭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놓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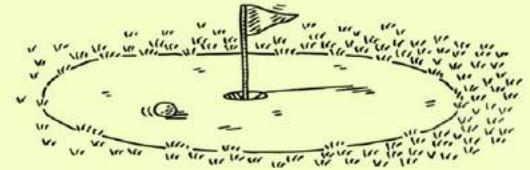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푸~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하루 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NY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www.nygolfcenter.com

詩人: 이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